

전략연구 2017-33

충남 지역 관광통계 실태와 조사 및 정비 방안

임재영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chyim@cni.re.kr

이종윤

충남연구원 연구원
space@cni.re.kr

연구 요약

이용 가능한 자원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사업들 역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심사 하에 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내용(규모, 위치, 유형 등)이 반영된 사업기본계획의 준비여부, 그리고 ②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참고로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수요전망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용의 비용 산정과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의 추계 과정과 그 결과이다.

즉, 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은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에 입각해서 수요전망을 수행할 기초통계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그 결과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란 구체적으로 2017년의 일 년 간 이루어진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결과로서 이와 함께 회신된 투자심사 의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전망 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충남의 지역 내 관광통계의 생산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들에게 관광통계와 이들의 정책활용을 위한 관광위성계정

(TSA)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UN·WTO(2008) 『관광통계 권고안(ITS 2008)』의 내용과 시사점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관광실태 조사사례에 대한 항목화·항목별 구체적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들은 결국 충남 지역관광통계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충남의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관광지 중심의 유료 관광객 집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과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관광실태조사의 병행을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관광통계 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은 앞 장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충남의 경우에 적합하도록 정리·제시 되었다. 결국 이렇게 집계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충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의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관광통계시스템은 이질적인 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국가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등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체계화됨이 언급되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6
4. 연구의 진행과정과 추진체계	8
제2장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10
1.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11
1)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절차	11
2)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범위	13
3) 재정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15
4)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수요분석 가이드라인 및 한계	16
2.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부문 재정투자사업 추진 성과	20
3. 지역 관광통계 생산현황	23
1) 관광지식 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	24
2) 국민여행실태조사 상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의 충남 내 관광통계	27
3) 문제점과 과제	30
제3장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벤치마킹	34
1. 국제기구들의 관광통계 작성 권고안 IRTS 2008	34
1)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	35
2) 관광관련 기본 개념 및 정의	36
3) 방문객과 관광여행의 특징	40

4) 내국인 국내방문객의 유동량	46
5) 관광객 지출	47
6) 지역 단위에서의 관광 측정	51
2. 지역 관광위성계정(TSA)	53
3.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	59
1) 지역 관광실태조사의 필요성	59
2)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지역 실태조사	60
제4장 충남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방안	63
1. 실태분석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한 충남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의 시사점 ..	63
1) 지역 관광통계 실태분석의 시사점	63
2) UN WTO(2008), IRTS 2008의 시사점	66
3) 타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의 시사점	70
2.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75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79
1. 요 약	79
2. 제 언	80
참고문헌	82
부 록	84
부록 1. 2017년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85
부록 2. 충남 도내 134개 관광지점별 입장객 수	87
부록 3.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	101

표 목 차

<표 1-1> 관광통계 작성 현황	6
<표 2-1>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시설 분류	13
<표 2-2>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의 체육시설	14
<표 2-3> LIMAC 타당성조사지침 상의 관광사업	14
<표 2-4>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이용객 수요추정 방법론 개요	17
<표 2-5> 2017년 기준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20
<표 2-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상의 충남 도 내 주요 관광지점(2017년 6월 말 기준)	26
<표 2-7>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	29
<표 2-8> 충남 방문 관광통계 정리표	31
<표 3-1> 여행의 주요 목적	41
<표 3-2> 교통 수단 표준 분류	44
<표 3-3> 지역별 관광부가가치(TVA)와 관광고용 추계결과(2005년기준)	58
<표 3-4>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항목	60
<표 3-5>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요약표*	62
<표 4-1> 충남 관광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대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제언)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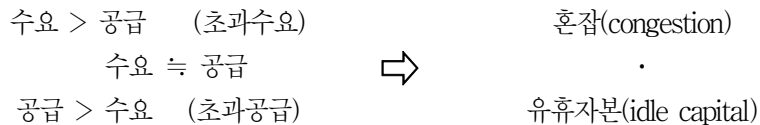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1) 개발사업의 진행과 수요	2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7
(그림 1-3) 연구의 진행과정	8
(그림 1-4) 연구의 수행체계	9
(그림 2-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12
(그림 2-2)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6
(그림 2-3) 추세 분석(관광 동향)을 활용한 수요추정 흐름도	19
(그림 2-4) 2017년 분기별 관광통계 유관사업 통과율(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기준)	21
(그림 2-5) 연차별 충남 도내 관광지 입장객 수 규모 변화(집계자료 기준)	25
(그림 3-1) Travel과 Trip의 개념적 범위	37
(그림 3-2) 숙박 여부에 따른 관광객 분류	39
(그림 3-3) 관광위성 계정의 구성과 체계	54
(그림 3-4) TSA와 지역 TSA의 관계(캐나다 PTSA의 예)	56
(그림 3-5) 임재영·유종현(2012)의 지역 TSA 작성과정	57
(그림 4-1)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안)	7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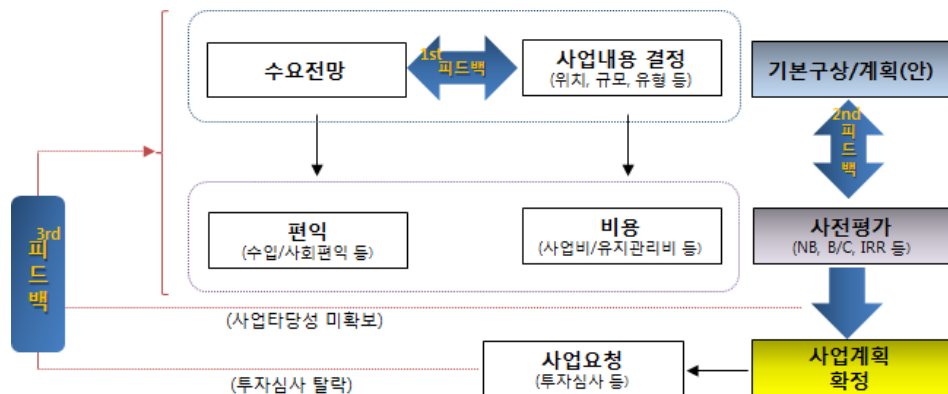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요(demand)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수요는 우선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사업량)와 유형 등을 결정짓는 핵심변수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수요나 초과공급(excess demand / supply)으로 인한 혼잡(congestion)이나 유휴자본(idle capital) 등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발생을 초래시키게 된다(김홍배 2003). 수요전망이 잘못된 대형 SOC 사업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경우 굳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규모 혈세낭비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요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과정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양 측면 모두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선 수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규모의 결정과정에서 핵심변수이며, 이로부터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다시 수요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이다.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무형 기반시설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 직접적인 현금수입 등과 같이 수요량에 곱해져 도출되는 변수들 외에도,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과 같은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등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갖는 경제 이론적 함의의 중요성은 굳이 여러 문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연구자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는 기본적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단위인 시군 단위 지역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우는 쉽게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과정에서 반려 조치되는 사업들의 거개¹⁾과 바로 이러한 ‘수요의 추정’과 그리고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수요는 (그림 1)에 포함된 다층적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사업 또는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면, 사업의 규모나 위치 유형 등은 수요에 기초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사업의 사전평가 과정인 경제성분석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초통계가 요구된다.



(그림 1-1) 개발사업의 진행과 수요

특히 요즈음 다양한 정책요구에 따른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관리강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강화의 핵심이

- 1) 2017년 정기 4차(4/4분기)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과정에서 충남 제안 6개 사업(모두 서부광역권 관광개발 계획과 선남부권 관광개발계획 포함 사업)
- 2) 사업결정은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균형 등의 측면이 포함되어 종합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재정사업의 수요’와 ② ‘객관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한 점검³⁾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사업진행의 통제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송지영, 2016). 이러한 내용은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를 위시로 하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 지역 내에서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의 예이다. 특히 관광개발의 영역에서 준비 중인 지역의 재정투자 사업의 상당 수가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근근히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들에서 확인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앞의 (그림 1-1)에 포함된 사업규모 결정과 수요 사이의 피드백 관계,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추계과정에서 수요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생략된 관광개발사업 계획 또는 투자심사의뢰서들을 현실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충남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충청남도(충남도청 및 도내 15개 시군청) 사업부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지원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등 대형 재정사업을 제외한 충남의 재정투자사업은 주로 관광과 문화, 체육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주민복지나 환경 등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들의 경우 사업지행 여부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논리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 사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수요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이용가능한 지역의 관광통계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수요전망이나 관련된 경제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① ‘기초관광통계의 절대적 부족’ 뿐만 아니라, 그나마 현존하는 관광통계마저도 ② ‘국가 승인통계와의 부합성 결여’ 문제나 ③ ‘지역 내에서 관광객들의 관광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한 사업 및 정책화 작업에까지 매끄럽게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3) 이러한 점검에는 사전평가만이 아니라 사업 중,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 대한 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2015)의 《건설진흥법》에서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개정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그리고 감사원의 지방건설사업 감사강화 움직임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구체적 설명은 뒤의 지역 관광통계 현황분석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굳이 UN(2008)이나 UNESCO(2009), WTO(2002), CEC, OECD, WTO and UN(2001 외)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관광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광통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제기구들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면서까지 관련통계의 조사 및 구축, 그리고 활용방법 등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통계가 제대로 생산되고 정비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 내 관광통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하여 지역의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 연구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관광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관광통계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충남 도 및 시군의 여러 사업 부서들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관광개발 관련 재정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과정을 통해 지역 내 관광 총량(aggregate data) 및 관광 행태와 관련 소비지출에 대한 지역의 자체통계와 중앙정부 승인통계 사이의 괴리 또는 편차를 구체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지역 내 관광수요 및 소비지출에 대한 최소한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관광행태별로 그들의 변화추이에 대한 최소한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온 자료를 통해 당장의 재정투자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관광통계의 활용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조사구축을 체계화하여,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관광통계 환경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에서 “경제활동의 한 범주로서 관광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토록 관광통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권고내용과 그 함의를 좇아 이들의 권고안과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지역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궁극적으로 Barber-Dueck and Kotsvos(2002)와 임재영·류종현(2012) 등이 언급한 지역단위의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작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 하에서 관광통계가 주로 관광객⁴⁾들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요즘 와서 이 관광객들의 행태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객들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통계이다. 20세기 후반부 이후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산업 또는 경제정책의 주요대상으로 관광이 부각되면서 관련되어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구축과 경제이론의 적용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관광통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관광 또는 여행실태 통계가 궁극적으로는 관광경제계정(TEA, tourism economic account) 또는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산업 및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의 매개 및 수단으로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함⁵⁾인 것이다.

관광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간주하는 경우, 관련된 통계자료 역시 경제 통계의 한 범주 내로 체계화 될 수 있다. 참고로 한 국가의 경제통계의 기준은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각년호) 등에서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국내 모든 경제통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들(WTO 2002 외)에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경제적 행태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satellite accounts)인 TSA에 담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지역 내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필수작업으로서 관련 기초통계의 조사와 정비 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국제기구들에서는 관광통계 작성에서 공통적으로 관광객을 주로 방문객(visitor) 개념으로 규정하고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5) 최근 들어 휴일(여가시간)의 확대를 통한 정(+)경제효과를 기대하려는 시도를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국내에서 주 5일근무제 도입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된 바 있다(임재영,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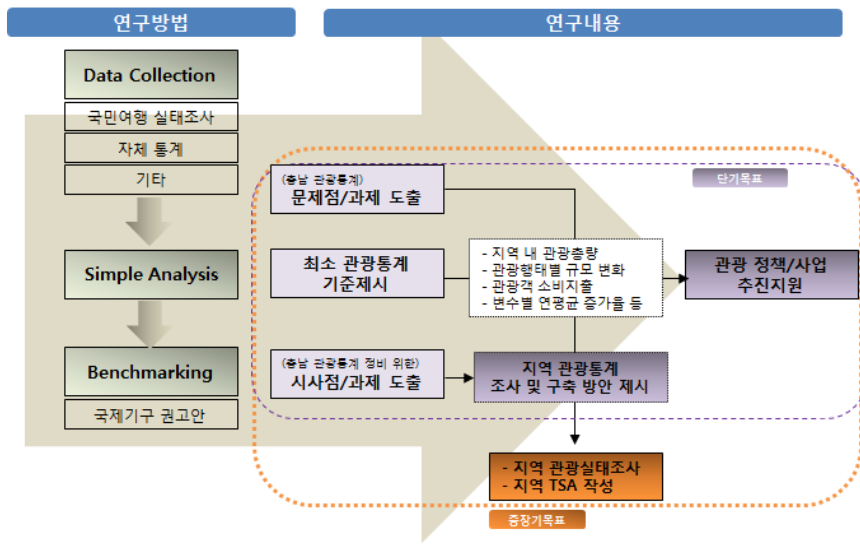
〈표 1-1〉 관광통계 작성 현황

구분		관광통계	관광경제통계
국제기구 권고안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TEA (tourism econmic account) 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전국 단위		-여행실태조사 (Inbound, Outbound, Domestic) - 기타 관광통계	Korea TSA
광역지역 단위	(통계유형)	지역 내 관광실태조사	지역 TSA
	(작성지역)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북, 전북, 경남, 강원 등	충남, 강원, 전북 등*
연구목표	단기	지역 내 관광실태 파악	지역내 관광실태조사 기반 지역 TSA 작성 정례화
	중장기	지역 내 관광실태 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 기반 간접추계

3. 연구 내용 및 방법

지역 관광통계의 이용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당장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 내의 관광실태의 변화 추이를 가늠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① ‘최소한도의 기초 관광실태 통계를 제출’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체계적인 관광 통계 정비를 위한 ② ‘지역 내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을 제시’ 하고자 의도하는 본 연구의 수행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그림 1-2)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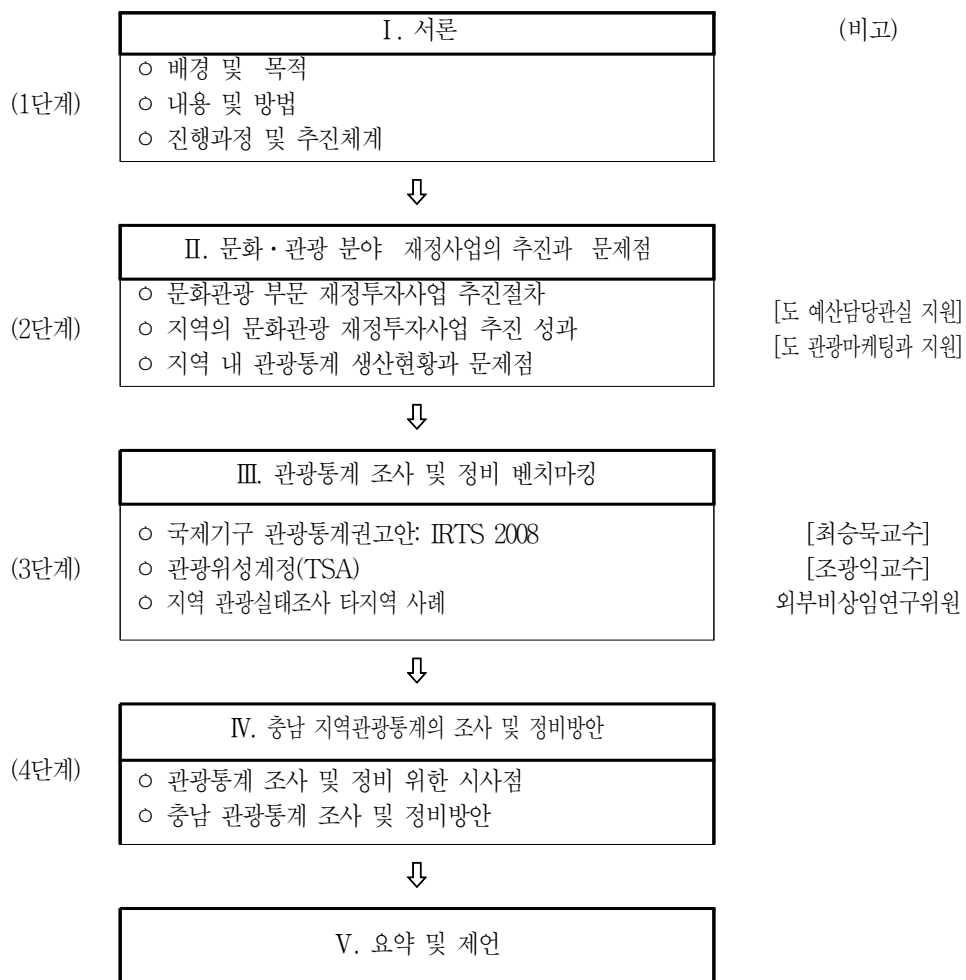
앞의 그림에 정리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벤치마킹 등이 적용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된다.

〈연구의 주요내용〉

- ①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 관광통계의 현황파악과 이를 이용한 분석
- ②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관광통계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 ③ 분석을 통한 최소 지역관광통계 기준의 제시(⇨ 재정사업 진행 지원)
- ④ 국제기구 권고안과 타지역 사례 검토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제시
(※ 중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실태조사와 지역 TSA 작성에 대비)

4. 연구의 진행과정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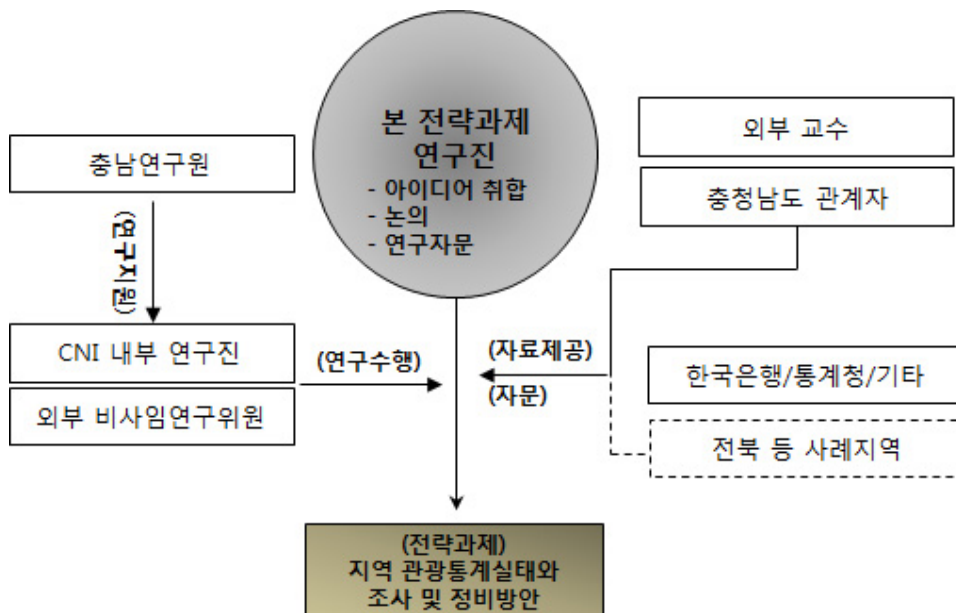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해당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크게 4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단, 본 그림에 제시된 각 단계별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예상목차와 직결된다.



(그림 1-3) 연구의 진행과정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본청 관광마케팅과의 협의 하에 충남연구원 담당연구진에 의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역 내 관광통계의 경우 충청남도의 자료지원을 통해 자료 구득이 이루어지며, 다만 본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의도하는 최소 관광통계의 제시과정에서 관광통계 항목의 결정은 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포함한 자문회의의 결과를 준용한다. 이 외에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된 국제기구 권고안 내용의 정리 등은 관련 연구실적을 감안하여 충남연구원 외부의 관련연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충남 지역 내 관광정책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기초통계의 조사 및 정비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본격적인 통계조사 및 정비를 위한 후속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추후 관련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후에 전라북도 등의 예에서와 같이 ‘도내 관광실태조사’ 및 ‘관광통계 구축과 정비’ 작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향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T/F의 준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4) 연구의 수행체계

제2장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앞 장 서론 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듯이, 광역시도나 시군단위 지역의 공공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직접적인 재원이나 자원의 부족 문제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역시 이용가능 자원의 한계 문제는 상시 존재하는 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송지영, 2016).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각각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조사와 심사 관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지침에 입각해서 사업의 진행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충남의 관광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사업 관련 조사 및 심사에 적용되는 지침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충남 지역의 성과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다음 3 절에서는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 관광통계 실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특히 충남 도 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⁶⁾,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광통계 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충남도 내의 지방자치단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도 관광통계의 조사와 작성, 그리고 그의 활용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UNESCO, 2009; UN, 2008; WTO, 2002; CEC, OECD, UN, WTO and WTO, 2002 외).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 3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6)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단위 외에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투입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관련 절차는 총사업비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집행된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⁷⁾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총사업비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⁸⁾로 진행된다.

현재 2015년 이후 충청남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대형 재정사업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다. 다만 앞 절에서 설명되었듯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앙정부 심사대상인, 중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꾸준히 발굴되어 투자심사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제공된다. 참고로 기획재정부(KDI PIMAC)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타당성조사지침으로 승계되었음이 인적 구성이나 업무성격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이 이미 언급되었다.

1)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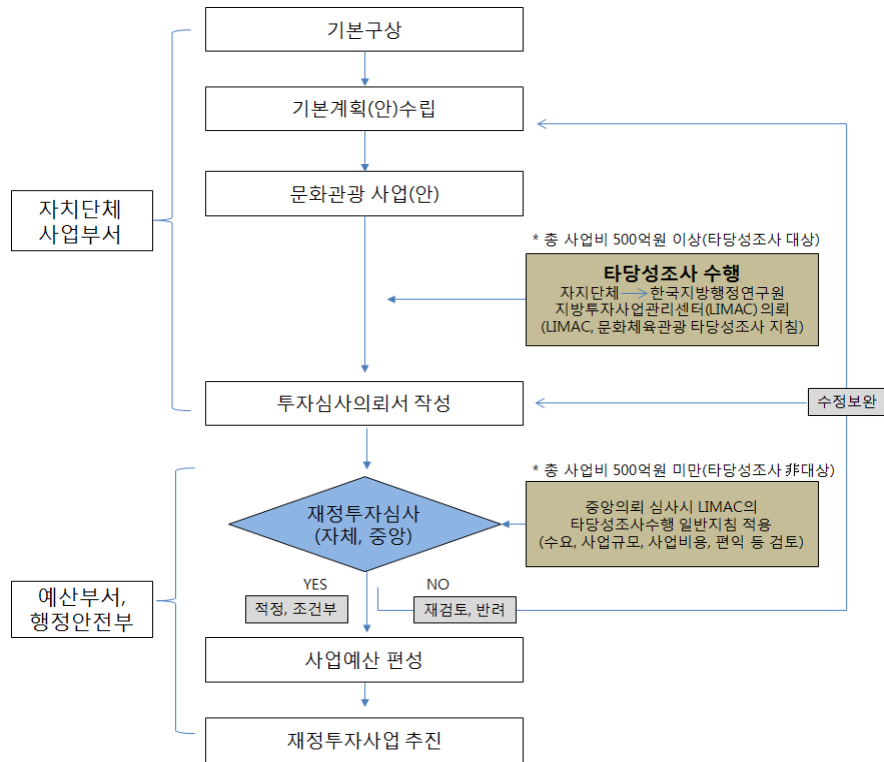
최근 행정자치부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재원의 500억 원 이상 대규모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경우도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⁹⁾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타당성조사 대상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켰으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7)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37조 2항

8) 행정자치부(201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조사 매뉴얼」

9)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2014.11.29. 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②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는 그림과 같이 중앙투자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는 점이다.



- 관련 제 지침 참조, 연구진 작성

(그림 2-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또한 50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 경우 타당성조사 미대상일지라도 중앙투자심사 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사업의 기본계획 보고서 자료가 부실하거나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투자심사의뢰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 또는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타당성조사의 지침은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범위

가. 문화시설

먼저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 시설로 구분되며, 지침에서 명시하는 각각의 유형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1〉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시설 분류

유형		기준	비고
공연시설	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공연법 제2조
	일반공연장	300석 이상 ~ 1,000석 미만	
	소공연장	300석 미만	
	영화상영관	-	
전시시설	박물관(국립, 공립, 사립)	운영주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미술관(국립, 공립, 사립)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시설	도서관(공공, 사립)	운영주체	도서관법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기본법
문화보급 및 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되고,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류는 다음 <표 2-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2〉 LIMAC 타당성조사 지침 상의 체육시설

구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피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다. 관광시설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구분되며, 관광객을 위한 운송숙박음식 운동 오락휴양을 위해 제공하는 업으로 LIMAC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광사업은 다음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3〉 LIMAC 타당성조사지침 상의 관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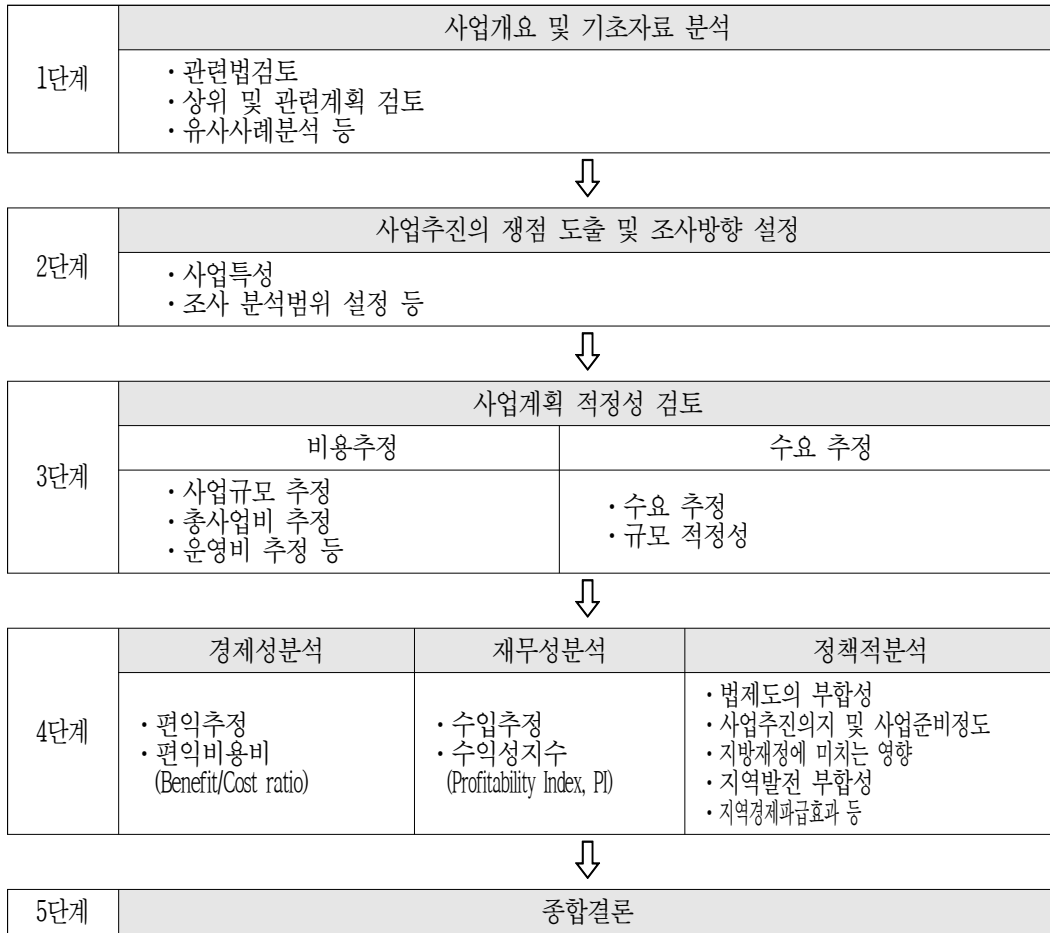
분류	유형
여행업	일반여행, 국외여행,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업	국내회의시설,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업	카지노 전문영업장
유원지시설업	종합유원지시설업, 일반유원지시설업, 기타유원지시설업 등
관광 편의시설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등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문의 타당성조사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의 사업들은 대부분 타당성조사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들 중 중앙투자심사 경우도 관련지침에 의해 대부분 검토를 받게 된다.

3) 재정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 부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은 그 순서대로 ①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② ‘쟁점도출 및 조사방향의 설정’, ③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④ ‘경제성, 재무성 및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해 ⑤ ‘사업추진의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등이다. 그리고 이 때 투자심사와의 관계는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는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모든 재정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하나 투자심사 제외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 및 검토를 완료한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관련지침의 타당성조사 내용 중 ‘수요추정’은 각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전망 결과는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변수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익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사업의 수요를 추정하느냐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제 지침 참조·인용

(그림 2-2)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4)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수요분석 가이드라인 및 한계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수요분석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문화·체육·관광부문 타당성조사 지침연구』에는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이용수요를 추정할 경우 다음 <표 2-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량과 정성적 방법의 유형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계열분석 방법과 설문조사 및 유사사례 방법론 등의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어 있다.

〈표 2-4〉 문화체육관광 시설의 이용객 수요추정 방법론 개요

예측기법		예측방법	적용가능 사업유형
정량적 기법	이동평균법	과거 시계열 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술평균하여 미래수요를 예측	해당시설물에 대한 과거 이용객자료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지수평활법	최근 관측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과거의 관측 값들을 지수적으로 가중평균 하여 미래수요 예측	
	추세조정법	시계열에 포함된 기본 패턴들을 네 가지 변동(추세,계절, 순환,불규칙)으로 분해하여 , 각 성분들을 개별 예측한 후 이들의 재합산을 통해 미래의 시계열을 예측	
	ARIMA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화시킨 후 AR 모형과 MA모형을 결합하여 적용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나타내어 미래를 예측	
	중력모형	거리나 시간이 이용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정성적 기법	시나리오설정법	수요나 성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를 예측	과거자료나 유사한 시설물 실적이 없는 경우 주로 사용
	델파이 기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조직적 접근방법	
결합기법	두 개 이상의 정량적 모형 또는 정량적 모형과 정성적 모형을 결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		모든 유형의 사업
수요조사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수요를 조사하는 방법		
간편법	유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요의 규모를 유추하는 방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2015), 『문화·체육·관광부문 통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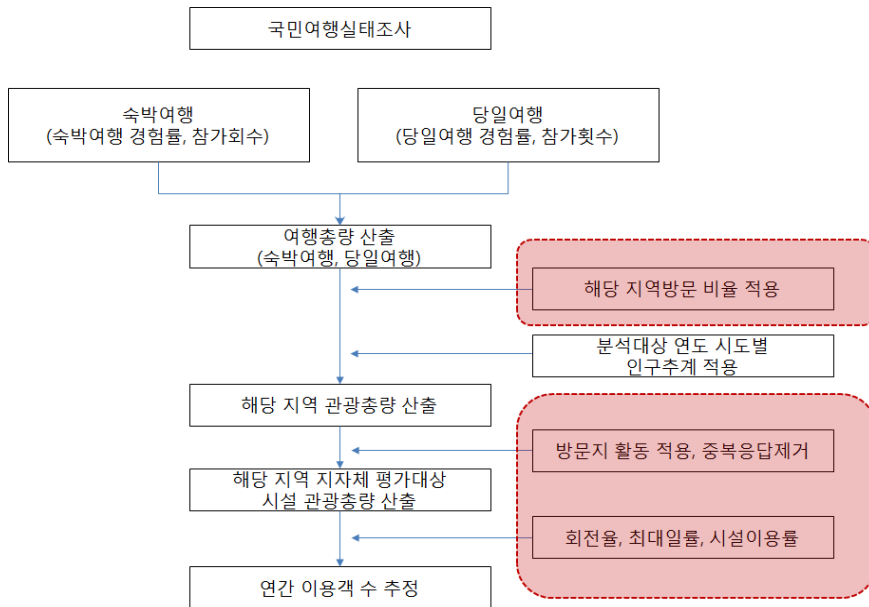
특히 표에서와 같이 관광수요 방법들 중 특히 시계열분석 기법의 경우 분석의 기초자료인 객관적인 이용객 현황이 과거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되어있어야 수요분석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2015)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계열분석은 과거 이용객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 수요예측 정보를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경제성분석 적용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2015)의 『문화관광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보고서에서도 추정자료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이용객 통계 D/B가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가 조사 및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량적 수요추정 방법론들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 박스 안의 내용은 LIMAC(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의 수요추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정량적 분석기법과 정성적 분석기법이 있음
- 정량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과거시설 이용객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ARIMA 모형 등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중력모형 등 수요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용객수 등과의 관계를 보는 인과모형을 들 수 있음
 - 시계열 분석의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과거 이용객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설계가 요구되며, 중력모형의 경우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데이터를 활용하나, 준거시설로서 활용할 유사시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관광수요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되, 관광총량할당 방식과 인구할당방식, 유사사례 비례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정성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임의의 시나리오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정 및 판단에 의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설정법(Scenario Writing Methods),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델파이법(Delphi Methods)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성적 분석기법은 객관적인 자료구득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정 및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조사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인용

이외에 LIMAC의 관련지침에서는 유사시설 정보가 있는 경우 관광수요 추정방법으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외 시설규모에 따라 전문가 및 설문조사, 유사시설 이용객 정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화관광 수요를 추정할 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통계는 국민여행실태조사와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통계청 승인통계인 ‘입장객 통계’ 등이다. 참고로 국민여행실태조사는 정부승인통계이고, 입장객통계는 보고통계로 구분된다.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곤란한 내용을 표시함
- 자료: 관련 지침 내용 편집·수정함

(그림 2-3) 추세 분석(관광 동향)을 활용한 수요추정 흐름도

그러나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용객 추정방식은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의 수요를 추정하기에는 그림과 같이 지역별, 시설별로 운영영역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은 어렵다. 또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입장객 통계자료 역시 2004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2012년 관광객지점 및 입장객 집계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서 제시된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시계열분석방법을 적용할 때는 과거이용객 자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침들에서는 다양한 수요추정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사업을 준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단위의 사업부서에서 특정 문화관광시설의 이용수요를 추정하기엔 현재 구축된 관련통계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2.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부문 재정투자사업 추진 성과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업규모와 특성 등에 따른 구분이며, 모두 재정투자사업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 유형별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들의 유형 및 특성들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연구팀(2015)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단,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충남 도내에서 개별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통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 중인 관광통계의 문제는 특히 도내 시군 단위에서 준비·제안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표 2-5〉 2017년 기준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구분	도자채심사		중앙심사		합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관광통계 유관	20	54.1%	20	57.1%	40	55.6%
관광통계 무관	17	45.9%	15	42.9%	32	44.4%
소계	37	100.0%	35	100.0%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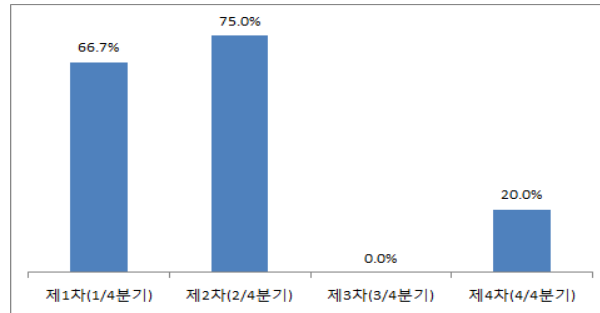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참고로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정기(제1차) 투자심사 과정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동안 센터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축적되어 구체적 전후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2017년 일 년 간의 충남도 내 재정투자사업들에 국한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충남 도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인 관광통계와 유관한 대형 재정투자사업(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한정)은 전무하다.¹⁰⁾

앞의 〈표 2-5〉은 2017년 일 년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에 제출된 도내 사업을 요약한 것이다. 충남 도 내 개별 시군단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본 보고서 부록 부의 〈부록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10) 최근 수 년 동안 충청남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추진은 교통 SOC 사업과 R&D 관련 분야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임계영·이종윤(2017)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앙투자심사 사업이 도나 개별 시군의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것이 일반적이다.¹¹⁾ 표에는 시군 자체심사 사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2017년 기준 연간 총 72개를 상회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들이 심사과정에 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그림 2-4) 2017년 분기별 관광통계 유관사업 통과율(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기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은 2017년 총 35건이 충청남도 및 시군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 중 57.1%에 해당하는 40개 사업이 관광통계와 유관한 사업들이다. 각 분기별로 관광통계와 유관한 사업들의 통과율¹²⁾은 다음(그림 2-4)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에서 제안한 관광통계와 유관한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사업은 3/4분기에 6개 사업 전체¹³⁾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주로 <지방재정법> 개정¹⁴⁾에 따른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변경(안)[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7.09.14.]
(개정이유)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

구분	도 자체심사	의뢰심사
개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시도: 4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1) 4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시군→시도) 2) 100억원 이상(시군→중앙) ○시도: 200억원 이상(시도→중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300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1) 4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시군→시도) 2) 200억원 이상(시군→중앙) ○시도: 300억원 이상(시도→중앙)

12) 관광통계 유관사업 중 조건부 통과 이상사업 건수/전체×100)

13) 해당 6개 사업은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남부권 관광개발계획』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포함 사업으로서, 충남도차원에서 이들 계획의 수립은 충남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수행함.

‘투자심사의 강화’ 추이와 직결된다. 특히 심사결과 재검토 사유로 회신된 내용들은 다음의 박스 안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2017년 3/4분기의 투자심사 결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검토 또는 반려조치가 이루어진 투자사업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이며, 앞서 제 1 장에서 제시된 (그림 1-1)의 내용의 미비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재검토 사유 공통 내용>

- ①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규모 변경
- ② 객관적인 관광수요 토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수지분석 필요
- ③ 자체 타당성 조사관련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은 LIMAC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적용 보완 필요 등

여기서는 충남 도의 자체심사와 시군 자체심사 대상사업들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들 자체심사 대상사업들의 경우는 충남 도 및 시군들의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의 심사 및 조사 수준까지 구체적이고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자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심사강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충남도의 투자심사에서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와 같은 방향으로 심사강화가 강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투자심사 자체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사강화 추세 속에서 지역에서 준비 중인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전망된 수요에 기초하여 사업내용을 결정’, 그리고 ② ‘앞의 ①을 통한 사업비 산정의 객관화와 사업의 수지 및 경제성의 분석’을 핵심골자로 하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사업평가지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재정투자사업의 결정의 기준이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이나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의 요소가 개입되지만, 적어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이행하고 난 후에 지역의 낙후성이나 정책적 고려 등을 어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골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수요전망 과정에서,

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즉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된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가 요구되고, 특히 이러한 통계자료의 문제는, 그 특성 상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관광관련 재정투자사업의 유형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통계자료의 요구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행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충남의 지역관광통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종다양한 관광행태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 통계자료는 언감생심이고, 사업 준비주체인 충남 도와 개별 시군 전체를 내방하는 관광객 규모도 제대로 추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과 현재의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문화관광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다음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3. 지역 관광통계 생산현황

본 장의 1 절에서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관광사업 중심의 투자심사 요청 건수와 이 가운데 특히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의 성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투자심사 관련된 일반 지침의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침대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투자심사의뢰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통계의 정비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역 관광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산 발표되고 있는, 충청남도를 관광목적지역으로 하는 관광통계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공된다. 이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현재 지역단위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 지역 내 내방객들의 관광실태에 대한 자료는 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국민여행실태조사’와

그리고 지역별 집계자료에 기초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상의 집계지 기준 방문객(공식명칭: ②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자료로 유이한 실정이다. 참고로 두 자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되어 조사 · 생산, 발표되고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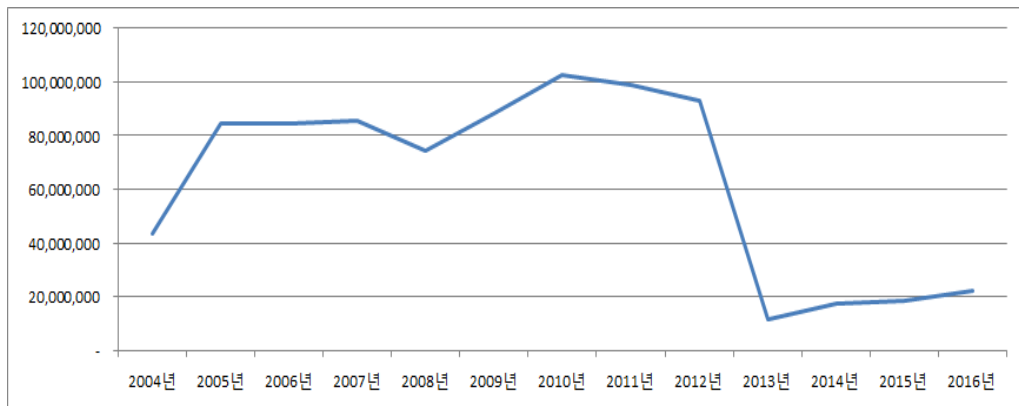
1) 관광지식 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

먼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집계지 기준 방문객)’ 자료는 현재 충청남도과 도 내 개별 시군 단위의 통계연보에 지역 방문객 수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 충남 도나 시군단위 지자체의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지역의 관광수요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자체의 설명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상의 ‘통계설명’ 부분에서는 다음의 박스 안의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집계자료와 지역의 관광총량과 상이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집계자료만으로 충남이나 도내 개별 시군 단위의 관광수요를 설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설명)

-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의 통계 내용은 개별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 집계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 총량과 상이하므로 자료 활용 시 해당 시설 방문객 수요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연도의 통계 확정치는 익년 4월 이후 공표됩니다. (분기별 공표 자료는 잠정치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 2011년 부터 서울특별시 통계가 추가되었습니다.
- * 2013년 부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에 추정방식을 통해 집계한 통계는 제공 하지 않습니다.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에서 인용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그림 2-5) 연차별 충남 도내 관광지 입장객 수 규모 변화(집계자료 기준)

그리고 이 통계 자료가 시계열(time series) 자료로서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계 방법이나 지점 및 시점 등에서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집계의 편의를 위해 유료입장객 중심의 계측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방문객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집계의 시점 문제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 참고로 앞의 (그림 2-5)는 이 자료를 통해 유효한 시계열 확보가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표 2-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상의 충남 도 내 주요 관광지점(2017년 6월 말 기준)

구분	계	관광지점명
계	134	
천안시	2	태딘위터파크, 독립기념관
공주시	17	골드리버CC, 공산성, 한옥마을, 마곡사, 석장리박물관, 송산리 고분군, 임립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프린세스 골프클럽, 계룡산(가사, 동학사, 병사골, 상신, 신원사, 지석골, 천정), 국립공주박물관
보령시	6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문화의 전당, 석탄박물관, 오서산자연휴양림, 웨스트피아, 질트랙 코리아(주)
아산시	14	도고컨트리클럽, 세계꽃식물원, 레일바이크, 스파비스, 외암마을, 에스지아름다운CC, 영인산자연휴양림, 온양관광호텔, 온양민속박물관, 파라다이스스파도고, 피나클랜드, 환경과학공원, 신정호국민관광지, 현충사
서산시	4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버드랜드, 용현자연휴양림, 해미읍성
논산시	3	관촉사, 명재고택, 백제군사박물관
계룡시	1	나라사랑계룡대전학
당진시	6	난지섬관광지, 월드아트서커스공연장, 아드로랜드, 아미미술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금산군	4	산림문화타운, 에딘버리(구대둔)컨트리클럽, 칠백의총, 인삼관
부여군	14	능산리고분군, 롯데리조트(아쿠아가든), 롯데스카이힐부여CC, 만수산자연휴양림,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청소년수련원, 유람선선착장, 서동요테마파크,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컨트리클럽, 고려인삼창인삼박물관
서천군	7	국립생태원, 마량리동백나무숲, 조류생태전시관, 한산모시관, 회리산자연휴양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스카이워크
청양군	14	고운식물원, 알프스마을(도농교류센터), 군포시청소년수련회, 송의청소년수련원, 고추문화마을, 동강리오토캠핑장, 칠갑산(도립공원산장로, 자연휴양림, 천문대, 오토캠핑장), 다락골줄무덤,장곡사, 천장호출렁다리, 목재문화체험장
홍성군	12	거북이마을, 그림이있는정원, 문당환경농업마을, 봉암장수마을, 용봉산(용봉초매표소, 구룡대매표소, 산림휴양관매표소), 조류탐사과학관, 홍성온천관광호텔부대시설(온천이용객), 식기박물관, 김좌진생가, 한용운생가
예산군	13	대홍솔도시티, 리솜스파캐슬(천천향), 봉수산자연휴양림, 세심천 온천호텔(온천), 수덕사, 예당관광지야영장, 국민여가캠핑장, 예산사과와인, 한국고전축박물관, 황새공원, 윤봉길의사기념관, 추사기념관, 알토란사과마을
태안군	17	고남패총박물관, 네이처월드(꽃축제장), 안면자연휴양림, 안면도쥬라기박물관, 안흥유람선,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태안연꽃축제), 팜카밀레허브농원, 노을길, 바람길, 바람길, 샛별길, 솔모랫길, 솔향기길, 신두리해안사구, 태안비치컨트리클럽, 현대더링스컨트리클럽

다만 집계 지점이 지역 관광통계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표 2-6>에서와 같이 집계지점이 지역 내 관광객 행태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계지점이 계속 변경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 문제로 인해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이용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계지점 수의 변화는 부록에 제시된 충남 도내 시군별 관광지별 입장객 수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 지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집계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에는 앞서의 문제들이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집계자료의 수집과 확인을 위한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집계자료가 의미를 갖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자료가 지역의 관광통계로서의 보다 충분한 의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계에 포함되는 대상 외에도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내 관광행태에 대한 직접 조사 작업과 연결되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조사 발표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 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참고로 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실태조사 결과는 이 자료가 유일한 실정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개별 연구 단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자료들이 국제 및 지역 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며, 구체적 정책 마련에 유용하도록 제시된 국제기구들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국민여행실태조사 상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의 충남 내 관광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홈페이지에서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을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 밝히고 있다(<http://knts.kcti.re.kr/about01.asp>). 이러한 조사목적 외에도 관련된 연혁, 법적근거, 조사주기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 조사는 1976년 이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조사작업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통계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UN과 OECD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기구들이 회원국에 요구하는 통계자료 제출을 위해 제공되는 작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관광의 영역에서 관광경제계정(TEA)이나 관광위성계정(TSA) 작성이 시도되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의 필수적인 기초작업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통계 조사 및 작성을 위한 권고안이 국내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2-7>에 정리된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앞서의 관광지별 집계자료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유료 입장객 수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국민여행실태조사는 관광객 총량 자료 외에 관광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 행태(tourism behaviors)들에 대해 구체적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앞의 집계자료가 수급관계의 파악에 필요한 양(quantity) 자료로서의 관련된 개발사업의 규모(size)나 위치(location) 등의 의미만 확보 있는 반면에, 표의 세부항목들을 포괄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그 수급 문제의 인과관계(causation)를 포함해서, 금전적 가치화된 행태의 결과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로부터 준비되는 정책과 사업이 국가나 지역 내 산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개발 국가나 지역들의 발전대안으로서 국제기구들에서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요구하는 것임은 본 보고서의 참고문헌에 제시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나 연구결과들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표 2-7〉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

구분	세부내용
1. 일반사항	숙박·당일여행 여부 /숙박·당일여행 및 북한여행 여부 /여행 출발 및 도착월·일 /여행시기 /여행목적
2. 여행목적(지)	여행 선택 시 정보원 /본인을 포함한 동반여행자 수 및 관계 /여행지 /여행지 선택이유 /주요 이동(교통)수단/숙박시설 및 숙박일수 /여행지에서의 활동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
3. 여행지출액	여행지출비용 총액(자비, 타인지원, 총비용) /여행 사전예약 여부 및 종류 /단체회비(경비) 지불여부 /단체회비(경비) 지불 금액 /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여부 / 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비용이 단체회비(경비)에 포함여부 /여행 출발 전/후 항목별 지출액
4. 여행소감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여행에서 좋았던 곳과 그 이유 / 여행에서 나빴던 것과 그 이유 / 응답자 건의사항
5. 기타 여행문항	

-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인용

그러나 유용한 ‘지역의 관광통계’ 라는 원래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국민여행실태 조사의 결과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결과 중심으로만 생산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국제기구들의 의도가 중앙정부 단위의 움직임에 국한되어 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의미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나마 실태조사의 결과를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된 관광목적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는 지표가 부분적으로 생산되어 광역 지자체의 정책에 기여하는 부문 역시 존재하나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실에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이 조사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시적인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관광경제 및 산업정책의 준비에는 분명히 유용하나, 시군 이하의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요구되는 개별 관광개발사업들을 준비과정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사에서 관광객들의 출발지역(origin)와 관광목적지(destination)을 광역 시도 단위로 설정한 데서 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2008년 기준 자료부터는 관광객들의 O/D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광역시도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는 지역간 관광거래(interregional tourism transaction) 규모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의 분석에서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inter-regional inter-industrial relationship)의 규명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함은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에 포함된 충남을 관광목적지역으로 하는 관광총량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이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전국 단위의 관광실태조사를 통해 충청남도도 포함한 광역 지역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행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춰서 조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의 관광유형이나 이들의 소비지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는 통계로서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이 결과는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권고하는 관광경제나 관광위성 계정의 작성까지 연결되기에는 미흡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3) 문제점과 과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관광통계가 ①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자료와 그리고 ② ‘충남 지역을 여행목적지역으로 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자료로 유익함이 앞에서

설명되었다. 그리고 전자가 ‘입장객 수’ 정보만으로 미시적이고 개별 사업단위에서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방문객 규모 외에도 다양한 관광 행태와 관련된 규모나 소비지출 등에 대한 자료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거시적이고 보다 광역적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관련 정책준비에 유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통계자료 외의 대안은 요원하므로, 두 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이용 가능한 두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자료 사이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동일한 속성의 지역 내 방문객 규모만을 놓고 분석을 해봐도 <표 2-8>과 같이 양자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집계자료가 유료입장객 중심의 134개 집계지의 합산자료이고,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가 씨베이 자료라는 조사방법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표 2-8〉 충남 방문 관광통계 정리표

구분		국민여행실태조사*			집계자료**
		여행참가자 (a)	참가회수 (b)	(b/a)	
		(천명)	(천회)	(회/명)	
2008년		15,342	19,855	1.3	74,225
2009년		13,033	16,650	1.3	88,394
2010년		6,709	17,201	2.6	102,411
2011년		7,025	13,413	1.9	98,715
2012년		7,816	18,522	2.4	92,926
2013년		8,828	22,822	2.6	11,822
2014년		9,758	23,596	2.4	17,521
2015년		9,945	27,559	2.8	18,732
2016년		10,192	23,782	2.3	22,505
연평균 증가율	(08년~16년)	-5.0%	2.3%		-13.9%
	(11년~16년)	7.7%	12.1%		-25.6%
	(14년~16년)	2.2%	0.4%		13.3%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호),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다만 고무적인 것은 동일한 통계자료(지역 내 여행총량의 대리변수로서 충남지역 내 방문객 수)의 양 통계자료 상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관광통계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조사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이듯이, 지역 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광역시도 단위에 주안점을 두는 문제와도 연관성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의 표의 내용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단위 문제이다. 집계자료의 경우 그 단위가 명인 반면에 실태조사의 단위는 명과 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행참가회수는 기준이 되는 일 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여행객이 특정 지역을 여러 회 여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 수가 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집계자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료 입장객으로 국한한 것이므로, 실제 134개 집계지점을 방문한 이의 규모는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 사이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충남도 내 시군 지역 단위의 관광객 수 자료는 앞서 언급된 집계자료가 유일하므로, 현 시점에서 이 자료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사업준비의 기초단위인 시군 단위를 관광목적지로 하는 관광실태에 대한 조사자료의 축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부록에 포함된 134개 집계지점별 유료방문객 수 자료가 지역을 내방한 관광객 수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원칙과 기준의 제시 없이 시군별로 다르게 구성된 집계지점별로 계측된 유료 방문객 수의 집계로 시군별 관광객 규모를 언급하는 현실이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집계지점의 변화로 해당 시군의 관광객 수 집계규모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에 대한 합리성이나 과학적 설명은 요원한 것이다. 또한 집계지점 선정에 대한 시군별 안배 문제도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점점이 필요하며, 지역 내 관광객들의 내방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자의 차이(지역 내방객 규모)를 줄여나가며, 집계 자료와 다양한 측면의 조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일체화하는 작업 즉, 조사와 집계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집계자료의 경우 조사지점 수 확대, 유료입장객 외에

관광객 대표할 수 있는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관광목적지로 국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 내 시군 이하 소규모 지역의 관광목적지 단위로의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안이나 타 지역 실태조사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와 도출된 시사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정비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나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며, 결과적으로 조사와 정비를 위한 내용들의 실효성은 제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제3장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벤치마킹

앞의 제 2 장에서는 현재 충청남도를 관광목적지로 하는 관광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관광통계의 부족문제가 논의되었다.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된 통계자료의 미비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준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충남 도 및 시군에서 제안된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사업의 상당 수가 채택되지 못했음이 설명되었다. 이렇게 충남지역에서 제안한 관광사업의 불채택 문제가 전적으로 관광통계의 미비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기초통계가 조사되고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에서 제안하는 정책이나 재정사업의 채택가능성 제고를 포함해서, 지역의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비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의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OECD와 UN 세계관광기구(WT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통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충남보다 먼저 지역의 관광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들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제기구들의 관광통계 작성 권고안: IRTS 2008¹⁴⁾

관광통계의 생산 및 활용 등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 WTO(2008)의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이하 IRTS 2008)」이다. IRTS 2008은 1993 관광통계권고안(1993 RTS; 1993년 위원회 채택, 1994년 출판)의 개정판으로 UN 통계위원회 35회 세션(2004년 3월 2-5일) 결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UN WTO는 관광통계의 편집과 보급에 관련되어 있는 개별 국가 및 다양한 종류의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국가들 간 관광통계의 일관성 및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IRTS 2008을 작성하였다.

14) 이 절의 내용은 본 연구의 비상임연구위원인 청운대 관광경영학과 최승목교수의 집필본이다. 또한 본 절의 내용은 주로 UN WTO(2008)의 IRTS 200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IRTS 2008은 개별 국가들의 관광 통계 방법론 및 운영에 대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UNWTO와 UN 통계처의 노력의 일환이며, 다른 공식 통계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관광위성계정 작성 등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IRTS 2008은 개별 국가의 통계 시스템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관광통계 수집과 편집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론적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IRTS 2008은 통계 편집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 통계청 및 국립관광행정청 직원뿐만 아니라 관광자료의 특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IRTS 2008에는 자료출처와 자료 편집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개별 국가들의 관광통계 발전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원(인력 및 예산 등) 역시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그래도 관광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IRTS 2008은 개별 국가들이 관광 및 관광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분석을 위한 정보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통계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배경과 내용으로 작성된 IRTS 2008은 국가단위의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충청남도 등 지역단위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IRTS 2008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 관광통계 생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관광객 실태 조사와 같은 수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 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1)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

관광(tourism)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주 지역(usual place of residence)을 벗어나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상으로 보통 즐거움(pleasure)이 이동의 일반적인 동기가 된다. 관광은 경제, 자연 및 인공 환경, 방문한 장소의 지역인구 및 방문객 자신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의 범위가 넓고, 또 관련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의 개발, 운영 및 모니터링(측정)에 대해서는 절충론적(holistic)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신뢰할 만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충분한 양의 적절한 관광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관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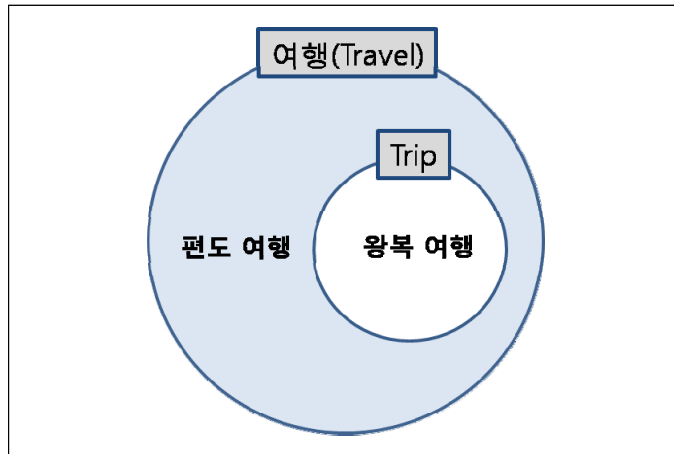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신뢰할 만한 통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적절한 자료가 있어야만 다양한 형태의 관광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양의 적절한 관광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통계는 마케팅 전략 설계, 기관 간 관계 강화, 경영의사 결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관광 평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관광관련 기본 개념 및 정의

가. 여행(Travel)

영어 ‘travel’ 과 ‘trip’ 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모두 ‘여행’ 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기되는데, 정확한 관광통계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travel’ 과 ‘trip’ 두 단어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IRTS 2008에 의하면 travel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인 여행객(traveler)의 활동’ 을 의미한다. 반면, trip은 ‘한 사람이 일상 거주지를 떠나는 시점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여행’ , 즉 ‘왕복여행’ 을 의미한다. trip은 ‘돌아오다’ 라는 왕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travel은 반드시 여행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travel은 ‘왕복 및 편도’ 여행을 모두 포함하는 하지만, trip은 ‘편도여행’ 은 포함하지 않는 용어이다.



(그림 3-1) Travel과 Trip의 개념적 범위

Travel의 유형은 목적지(destination)를 기준으로 구분 하는데, 여행자(traveler)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이며 목적지가 자국 내일 때 ‘내국인 국내여행(domestic travel)’, 여행자(traveler)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이며 목적지가 자국 밖(해외)에 있을 때는 ‘내국인 해외여행(outbound Travel)’, 여행자(traveler)가 비거주자이며 목적지가 해당 국가 내에 있을 때에는 ‘외국인 국내여행(inbound travel)’ 으로 구분한다.

나. 관광(tourism)

관광(tourism)은 여행(travel)의 하위개념으로 ‘방문객(visitor)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 으로 정의 된다. 여기서 방문객이란 휴가, 여가활동 및 오락, 사업, 보건, 교육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관광 (tourism)은 앞서 제시한 여행 목적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방문객의 활동을 포함한 것으로, 과거에는 여가(leisure)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만을 관광객으로 보던 인식과 비교할 때 그 개념의 범위가 훨씬 넓게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국내여행(domestic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방문객(resident visitor)의 활동은 ‘내국인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이라 하며, 내국인 해외여행(outbound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방문객(resident visitor)의

활동은 ‘내국인 해외관광(outbound tourism)’ 이라 한다. 또한 외국인 국내여행(inbound travel)의 일부로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 거주 방문객(non-resident Visitor)의 활동은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 이라 한다.

다. 여행객(traveler)과 방문객(vis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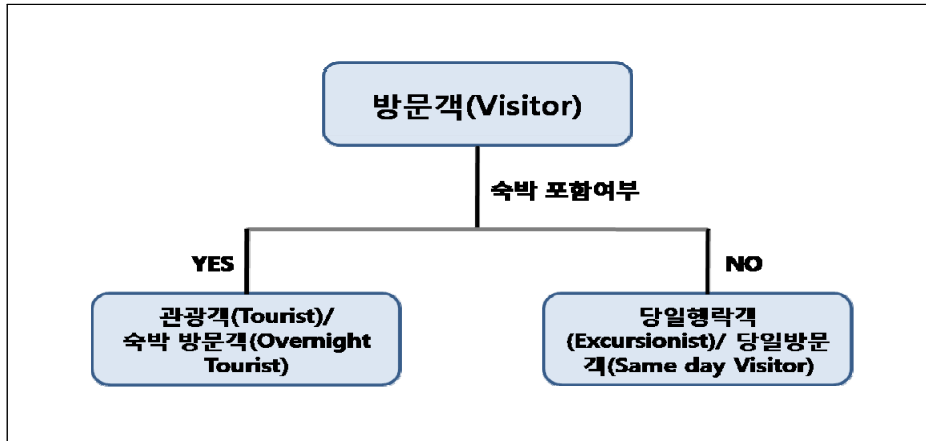
IRTS 2008에서 방문객(visitor)은 여행객(traveler)의 하위개념이며 ‘휴가, 여가활동 및 오락, 사업, 보건, 교육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환경 밖에 있는 주요 목적지로 1년 미만의 단거리 여행 (trip)을 가는 사람’ 으로 정의 된다. 여행객(traveler) 중 거주지를 벗어나 ‘일상 생활권(usual environment)’ 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방문객에서 제외 된다. 여기서 일상생활권이란 특정 개인이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장소로 정의되는데 2개의 일상생활권이 존재할 경우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즉, 일상 거주지와 직장 또는 학교를 정기적으로 통근 또는 통학 하는 여행객, 현재의 생활 속에서 친구, 친척집, 쇼핑센터, 종교시설, 보건 시설 및 기타 시설 등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방문하는 여행객은 방문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는 방문객으로 인정된다. ① 기구(equipment) 설치, 수리,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짧은 기간(1년 미만) 머무르며, 거주자와의 절대적인 고용-피고용의 관계를 맺지 않은 비 거주자 피고용인 및 자영업자, ②방문한 국가 및 지역의 거주 주체와 사업 협상 차 혹은 사업 기회(구매 및 판매 포함)를 찾고자 방문하는 여행객

한편 다음의 경우는 방문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일상 거주지가 아닌 타 국가 및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경 또는 행정적 경계를 넘는 여행객(예: 국경 근로자), ② 여행객이 방문 국가의 거주자와 고용인-피고용인 관계에 있다고 간주될 경우(단, 고용 및 보수 지급이 우발적인 것이라면 방문객으로 인정 됨), ③ 일상 거주지가 아닌 방문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공식적·비공식적 단기 근무 계약을 통해 고용된 여행객(농업, 건설,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계절성 근로자 등)

방문객은 숙박여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방문객의 활동이 숙박을 포함하고 있으면 숙박 방문객(overnight visitor) 또는 관광객(tourist)로 구분되며, 숙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일 방문객(same day visitor) 또는 당일 행락객(excursionist)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객은 엄밀히 말하면 ‘숙박을 포함하고 있는 내외국인 국내방문객 및 내국인 해외방문객’을 의미한다.



(그림 3-2) 숙박 여부에 따른 관광객 분류

라. 일상생활권

방문객 유동량을 비롯한 모든 관련 변수의 측정은 일상 생활환경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 생활권은 관광의 주요 개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앞서 일상생활권을 특정 개인이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인 장소로 정의하였다.

일상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일상 거주지와 직장(또는 학교)을 정기적으로 통근(통학)하는 여행객,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친구 및 친척 집, 쇼핑센터, 종교시설, 보건시설 및 여타 시설 등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여행객 등을 방문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인구 밀도, 교통 접근성, 문화적 행동, 국경 및 행정적 경계로의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국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개인의 일상 생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 결정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권에 대한 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여러 기준(여행의 빈도, 여행 기간, 국경 또는 행정적 경계의 월경, 일상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들에 근거해야 한다.

IRTS 2008은 일상 생활환경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행의 빈도와 기간이라는 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경계를 넘는 월경이라는 기준을 거리(distance) 기준과 함께 결합시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행정단위의 크기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대도시(metropolitan) 지역은 그것이 하나의 조밀하고 인접한 지리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개인은 일상 거주지가 행정적 경계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경계를 횡단하는 것이 관광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휴가용 별장(vacation home)은 일상 생활권에서 제외된다. 즉 별장으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관광여행(tourism trip)으로 분류한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휴가용 별장을 이용하는 여행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지출 및 행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적 목적과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별장으로의 여행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방문객과 관광여행의 특징

여행은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 및 여행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을 관찰함에 있어 방문객의 특성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객의 특징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은 출입국 카드, 숙박 시설에서 수집된 정보 등의 행정적인 수단, 가구 조사 및 국경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방문객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으로는 성별, 나이, 경제활동 상황, 직업, 가족·가구·개인의 연간 소득, 교육 수준 등이 있다.

나. 관광여행의 특징

관광여행은 여행의 주요 목적, 관광 상품의 종류, 여행·방문·체류의 기간, 출발지 및 목적지, 교통 수단의 종류, 숙박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여행의 주요 목적(Main Purpose)

여행의 주요 목적은 ‘그 이유가 없었더라면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뻔 했던 목적’으로 정의된다. 여행의 주요 목적은 해당 여행이 관광여행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행객이 관광객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관광지출 패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며, 기획·마케팅·홍보의 목적을 위해 관광수요의 주요 부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행의 주요 목적은 크게 ‘개인적 목적’과 ‘사업 및 전문 활동’ 목적으로 구분되며, 개인적 목적은 휴일·여가 및 오락, 친구 및 친지 방문,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치료, 종교 및 성지순례, 쇼핑, 경유 등 세부 항목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경유’를 제외한 여행의 주요 목적은 여행 중 일어나는 주요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환경을 벗어나 타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는 ‘여행’에 속하지만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방문 지역이 그들의 일상 생활환경으로 간주되어 ‘여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유학을 하는 학생들과 ‘건강 및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여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쇼핑’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 혹은 선물용으로 소비재를 구매하는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 포함되지만, 재판매 및 향후 생산 활동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은 ‘사업 및 전문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IRTS 2008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행의 주요 목적 분류 방식을 보다 간소화하여 방문객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범주가 추가적인 분류 단계로 간주될 만큼 중요하다면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기존 분류 단계의 하위 범주로 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의산업’이 매우 중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 및 전문 활동’의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 여행의 주요 목적

구분	세부 목적
개인적 목적	휴일·여가 및 오락, 친구 및 친지 방문,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치료, 종교 및 성지순례, 쇼핑, 경유, 기타
사업 및 전문 활동	

개인적 목적의 세부 목적별 주요 활동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휴일, 여가 및 오락: 관광지 방문, 자연 및 인공유적지 방문, 스포츠 또는 문화 이벤트 참가, 비전문적 활동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스키, 승마, 골프, 테니스, 다이빙, 서핑, 하이킹, 트레킹, 등산 등), 해변, 수영장 및 다른 오락 및 위락시설의 사용, 크루즈 여행, 도박, 어린이들의 여름캠프 참가, 휴양, 신혼여행, 특별한 외식, 웰니스 호텔 등 웰빙에 특화된 시설 방문, 피트니스 전문시설 방문(치료 목적 제외), 특정 가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별장에서의 체류 등
- 친구 및 친지 방문: 친척 및 친구 방문, 결혼식·장례식 및 기타 가족 행사 참석, 환자 및 노약자의 단기 간호 등
- 교육 및 훈련: 고용인 및 다른 사람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는 단기 코스 수강(직장 내 OJT는 제외),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참가, 공식 과정(유료 교육 프로그램, 언어 수업, 전문기술 수업, 기타 특별 수업, 대학의 안식년 휴가 등)을 통해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 등
- 건강 및 치료: 병원·클리닉·회복환자 요양소 등 방문, 보건 및 사회시설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 해수치료 및 스파 리조트 방문, 의학 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한 성형수술, 의학적 권고에 기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1년 이상 장기 체류는 제외)
- 종교 및 성지순례: 종교 모임 및 종교 행사 참가, 성지순례 등
- 쇼핑: 개인용도 혹은 선물용으로 소비재를 구매하는 행위(재판매 및 향후 생산 활동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은 제외)
- 경유: 또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로써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 잠시 머무르는 경우
- 기타: 봉사활동, 직장 및 이주 가능성에 대한 조사,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무보수 활동 등

사업 및 전문 활동의 예로는 회의·컨퍼런스·무역 박람회·전시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방문객이 비거주자를 위해 방문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매매하는 행위, 외교관,

군인 혹은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외국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행위(방문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재하는 경우는 제외), 비정부기관(NGO) 활동에의 참가, 과학 및 학술 연구에의 참가, 관광 전문가로서의 활동(관광여행의 조직, 숙박 및 교통서비스의 계약, 비 거주 여행사를 위한 가이드 등),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 참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직장 내 교육(OJT)에의 참가, 회사 제트기·요트 등 개인 교통 수단의 승무원이 되는 것 등이 있다.

■ 관광 상품

관광 상품은 ‘방문한 장소의 특성, 교통 수단, 숙박의 종류, 목적지에서의 특정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의 특성에 따라 음식관광, 생태관광, 도시관광, 의료관광 등과 같이 관광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관광 상품에 대한 통일된 방식은 정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상품에 따른 특정 분류방식에 대한 국제적 권고안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 여행·방문·체류 기간

여행 기간은 관광의 규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숙박 서비스와 같은 관광 서비스의 수요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여행과 관련된 지출을 추정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숙박이 포함되지 않은 여행은 그 여행에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당일여행’으로 간주되며, ‘숙박여행’은 그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박 미만을 단기 체류, 4박 이상은 장기 체류로 구분한다. 국제관광의 경우 관련 국가들 간 정보의 통합 및 교환을 위하여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체류 범주에 부합하게 장기 체류에 대한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다. 또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가 중요시되는 국가의 경우는 매우 긴 체류를 포함하는 별도의 범주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내국인 국내 관광의 경우 단기 주말여행 및 장기 주말여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출발지와 목적지

IRTS 2008은 하위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내국인 국내여행을 분석할 경우, 방문객의 일상 거주지, 방문객의 특성, 여행의 주요 목적지에 따라 여행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국내여행 방문객의 거주 국가를 분류하고 내국인 해외여행 방문객의 목적지를 분류할 때에는 동일한 국가 및 영토 분류를 사용해야 하며, 유엔통계처(UNSD)의 표준 국가 및 지역 코드를 기초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교통 수단의 종류

교통 수단은 ‘여행 중 방문객이 주로 사용한 수단’ 으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된 수단, 가장 오랜 시간동안 사용한 수단, 총 교통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단 등의 방식으로 주요 교통 수단을 설정할 수 있다. 국제 여행의 경우 주요 교통 수단은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방문하는 국가의 국경을 넘을 때 사용한 교통 수단으로 결정된다. 주요 교통 수단에 따라 여행을 분류할 때 대부분 국가들은 UNWTO에 의해 개발된 표준분류 안을 활용한다.

〈표 3-2〉 교통 수단 표준 분류

대분류	소분류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항공편 비정기 항공편 개인 비행기 기타 항공 수단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선 및 페리(ferry) 크루즈 선 요트 기타 수상교통 수단
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 대형버스(motor coach), 버스 및 다른 공공 도로 교통 수단 운전사를 포함한 운송수단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리무진 및 운전사를 포함한 개인 자동차 대여 -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운송수단의 대여 자가용(최대 8명 탑승 가능한 차) 운전사를 포함하지 않은 운송수단 대여(최대 8명 탑승 가능한 운송수단) 다른 육상 교통 수단: 말, 자전거, 오토바이 등. 도보

■ 숙박 시설의 종류

숙박은 전체 여행 경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숙박 시설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처럼 중요한 숙박 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 분류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방문객이 이용하는 숙박 시설은 상업적 용도의 유료 시설일 수도 있고, 가족·친척 및 친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무료 시설일 수도 있다. 또한 개인 소유의 별장일 수도 있으며 야외 취침 등과 같이 어떤 종류의 숙박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IRTS 2008에서는 방문객 숙박 시설을 단기 숙박 시설의 활동, 캠핑장·레저용차량(RV; recreational vehicle) 주차구역 및 이동주택(trailer) 주차구역, 기타 숙박 시설,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산의 부동산 관련 활동, 유료(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숙박 시설의 활동: 일반적으로 방문객의 단기 거주를 위해 1일 혹은 일주일(weekly)을 기준으로 하는 숙박 시설(숙박 서비스 이외에 식음료 서비스, 주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수영장 및 운동 공간, 오락 시설, 회의·컨벤션 시설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도 포함함)
 - 호텔, 리조트 호텔(resort hotel), 스위트룸·아파트형 호텔, 모텔, 모터 호텔(motor hotel), 작은 호텔(inn),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 펜션(pension), B&B(bed and breakfast) 시설, 유스호스텔(youth hostel), 방문객용 플랫(flats) 및 방갈로(bungalow), 공동소유 시설(time-share unit), 별장(holiday home), 샬레식 별장 chalets),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작은 별장(cottage) 및 오두막(cabin) 등
- 캠핑장·레저용차량 주차구역 및 이동주택 주차구역
 - 단기 거주 방문객을 위한 캠핑장, 이동주택 주차구역, 여가용 캠프, 낚시 및 사냥 캠프 등 숙박 시설의 제공
 - RV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제공
 - 산악보호소(mountain shelter)에 의해 제공되는 숙박서비스 등
- 기타 숙박 시설: 학생이나 이주근로자(계절 근로자) 및 기타 개인에게 임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인 방(single room) 혹은 공유하는 방(shared room) 및 기숙사 등의 숙박 시설
 - 학생 거주지(student residence), 학교 기숙사, 근로자용 호스텔, 방만 제공하는 하숙집(rooming house) 및 하숙집(boarding house), 열차의 침대차량 등
-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산의 부동산 관련 활동
 -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아파트 등)에 대한 판매, 임대 및 운용
 - 보다 장기적인(permanent)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월간(monthly) 또는 연간(annually) 기준으로 제공되는 가정집(home), 가구가 갖춰진(혹은 갖춰지지 않은) 연립주택(flat), 아파트의 제공
 - 거주형 이동 주택 공간의 운영

- 유료(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활동: 유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
 - 부동산 중개업자 및 브로커의 활동,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와 관련된 중개 업무, 유료 혹은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감정 서비스, 부동산 결제대금예치(escrow) 중개업자 등

다. 방문객 및 여행의 특성 측정 방법

여행 및 관광객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출입국 카드, 여행 목적지 또는 숙박 시설에서의 조사, 가구 조사를 통한 설문(내국인 국내관광 및 내국인 해외관광의 경우) 등을 사용하고 있다.

4) 내국인 국내방문객의 유동량

내국인 국내관광의 유동량을 관찰할 때는 국경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통계적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숙박관광(overnight tourism)과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 통계가 내국인 국내방문객과 외국인 국내방문객에 대한 정보의 주요 통계출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방문객과 기타 여행객을, 그리고 내국인 국내관광객과 외국인 국내관광객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도 특정 기간 이루어진 여행에 대한 인터뷰, 즉 가구조사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공간적 · 인구학적 · 사회경제적 기준을 사용한 층화표본(stratified sample)에 근거한 가구조사는 내국인 국내관광 활동 및 관련 소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가구조사는 당일 방문객과 숙박방문객 모두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와 설계는 측정할 변수의 중요성 및 정확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관광 분석을 위해 국내조사를 설계할 때는 국가 전역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관광 분포의 편중(unequal distribution), 그리고 관광활동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모집단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구조사에서는 여행 중인 관광객을 관찰하여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의 특정 시점에서 방문객의 왕복여행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방문객의 관광 활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관광에 대한 가구조사에서 여행은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숙박통계에서는 머물렀던 숙박일수가 측정변수가 되는데, 숙박일수는 방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여행에 대한 가장 주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숙박통계는 대부분 유료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census) 조사를 기초로 한다. 친구 및 친척집에서 머무는 경우, 혹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으로의 여행 등 무료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여행의 일부는 여기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숙박통계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국내관광 및 외국인 국내관광의 평가에 대한 중요한 단기 지표를 제공한다. 숙박통계는 대부분 센서스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분화된 지역 구분에 대한 자료 획득도 가능하다. 또한 숙박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는 응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대신 기존 등록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센서스 조사에서 수집된 기본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보강할 수도 있다.

5) 관광객 지출

가. 관광 지출의 정의와 범위(Coverage)

관광 지출이란 ‘관광여행 중 개인적 목적 또는 선물용으로 귀중품을 포함한 소비재 및 서비스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해 지불된 금액’을 의미한다. 관광 지출에는 방문객의 지출은 물론 다른 사람(예: 자녀, 회사 등)에 의해 지불되거나 상환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 관광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

개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재와 서비스로 간주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잠재적으로 관광 지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사용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 전형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림, 예술작품, 보석 등의 귀중품, 내구소비재, 조리 및 비조리 식품, 제조품, 모든 개인 서비스 등 여행 중 습득한 모든 항목이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출장 중인 피고용인을 위해 고용인이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화폐 지출은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방문객에 의한 화폐 지출 중 고용인(기업, 정부 및 비영리 기구), 다른 가구, 사회보험제도 등 제3자로부터 환급 받는 지출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교육, 보건, 박물관, 공연 등의 분야에서 정부 및 비영리 기구가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방문객의 화폐 지출 역시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주로 고용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관광여행 중에 피고용인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 보조금이 지급되는 교통, 숙박을 비롯하여 고용인의 별장 이용 등의 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불)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생산자(기업, 정부, 비영리 기구)가 주로 비용을 지불하고 초대권을 발부하는 스포츠 및 기타 문화 행사에 참가할 때 방문객이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금액도 관광 지출에 포함된다.

■ 관광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의 지출 금액은 관광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품의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 및 관세의 지불
- 여행 중 이루어진 지출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자 지불
- 토지와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의 구매
- 주택 및 부동산 구입 뿐 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리 및 개조 공사에 쓰인 모든 비용. 별장과 관련된 경상비 역시 제외됨
- 생산자 등 제3자를 대신하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재판매(resale)하기 위한 재화의 구입
- 자선단체나 가족과 친지 등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와 같은 모든 현금 이전(transfer) 등

나. 관광 지출의 시점 및 경제영역 구분

■ 관광 지출 시점 구분

‘가구 및 개인에 의한 최종 소비’가 지불시점이 아니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혹은 서비스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과 같이 관광지출도 방문객이 관광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을 ‘관광지출 시점’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했다라도 관광 지출 시점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호텔에 체류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 경제영역의 구분

관광이 특정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 지출이 발생한 경제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관광 지출은 방문객의 일상 거주 환경과 방문한 장소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을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 관광 지출의 범주(Category) 및 구성(Classification)

■ 관광 지출의 범주

관광의 유형이 내국인 국내관광, 내국인 해외관광, 외국인 국내관광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이 관광 지출의 유형도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로 구분된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하고,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경제영역 외에서 발생한 거주 방문객의 관광 지출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송서비스, 해외 인터넷 쇼핑 등 지출이 이루어진 경제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으며, ‘내국인 해외 방문객’에 의한 지출이 ‘내국인 국내지출(예: 출국전 거주국가에서 여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지출)’과 ‘내국인 해외지출(예: 해외 여행지 현지에서의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같이 관광객의 유형과 동일하게 관광 지출의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관광 지출 유형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 지출의 유형을 관광 지출이 발생한 경제영역 및 경제 주체에 따라 ‘국내관광 지출’, ‘국민관광 지출’로 재분류 할 수도 있다. 국내관광 지출은 방문 국가의 경제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 즉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국민관광 지출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발생시킨 모든 관광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포함한다. 국제관광 지출 역시 정의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진 비거주자의 관광 지출과 해당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의 관광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 관광 지출의 구성

방문객의 수요와 해당 경제영역에서의 공급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어야 한다.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방문객이 응답하는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방문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IRTS 2008에서는 관광 지출의 목적에 따라 구성 성분을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RTS 2008에서 권장하고 있는 관광 지출 분류 범주는 패키지 여행·패키지 휴가·패키지 관광, 숙박, 식·음료, 현지 교통, 국제 교통, 여가활동·문화·스포츠, 쇼핑, 기타 등이다. 또한 조사된 자료에서 관광 지출의 구성 성분을 재화 및 서비스로 분류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방문객 및 관광여행의 특징’과 교차 분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관광 지출 측정 방법

IRTS 2008에서 외국인 국내관광객 조사는 특별한 지출 모듈(Expenditure module)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월별·분기별·연도별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고, 성수기·비수기 등 특정 시점에만 실시될 수도 있다. 또한 간헐적으로 일부 선별된 국경에서만 시행할 수도 있다. 외국인 국내관광객 조사 시 국경에서 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료 숙박 시설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 거주자의 해외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기록과 같은 기타 자료로 보완할 수도 있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이나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측정할 경우, 일반 가구 지출조사에 사용되는 월별·분기별 주기 조사 모듈을 활용하거나, 관광 지출 측정에 특화된 가구조사 모듈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과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을 측정할 때에는 은행신고 시스템, 신용카드 명세서, 여행사, 기업 및 교통 통제당국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내국인 방문객들에게 특정 여행 및 방문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을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취득되는 경제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6) 지역 단위에서의 관광 측정

최근 지자체 관광당국은 지역의 관광기업 및 조직들을 위해 향후의 사업적 기회를 확인하고 관광산업의 규모와 밀집도를 평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통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 지역관광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까지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지표들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적 통계와 지역 수준에서의 추정 가능한 일부 관광위성계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자체 관광당국의 다양한 수요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특정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관광의 특색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지자체 관광당국의 다양한 수요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관광 목적지로서 지역이 가지는 특색의 중요성을 부각하거나 강조해야 할 필요성
- 한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특성 및 지출 성향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수요 유형 파악 등) 및 투자(인프라 건설 등)를 계획해야 할 필요성. 이 때에 정책 및 투자는 지역별 목표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분류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관광 핵심 상품 및 관광산업의 분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 방문객의 수, 특성 및 지출 등의 관점에서 파악한 관광이 지역별로 또는 국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성

그러나 지역별 자료를 생산하는 데는 통계적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관광통계를 위한 국가적 자료수집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표본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경계(administrative border)에서 나타나는 통제의 부재로 인해 특히 어렵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작성한 관광 추정치(estimate)는 다른 지역에서 작성된 추정치와 상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관광통계 추정치의 신뢰성(credibility)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방법으로 IRTS 2008은 제시한 국제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하나로 통일된(common) 개념의 집합을 사용해서 지역(region) 및 지방(local)

수준에서 관광 자료를 수집할 때 국가 통계사무국, 관광당국 및 관광통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타 조직이 국가적인 도구(instrumen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 국제 권고안을 기초로 한 개념의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해당 국가 전체의 관광통계가 구축될 수 있게 된다.

한 국가 안에서도 종종 인구의 밀도, 교통수단의 접근 가능성, 문화적 행동, 행정적 경계와의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생활환경(usual environment)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대해 지역 및 국가 주체들 간에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IRTS 2008은 기존의 권고안을 충족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한 공통된(common) 정의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일차적 접근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 관광당국은 자신들의 지역에 적합하게 맞춰진 경제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그리고 관련 정책을 계획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들로 국가의 자료를 보완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특히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IRTS 2008은 이러한 경우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자료가 국제적·국가적 통계표준과 권고안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관광통계를 개발할 때 특정 지역으로의 방문객을 일상 거주공간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방문객과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IRTS 2008은 특정 지역으로의 방문객을 다른 국가에서 온 거주자(국가 전체의 기준에서 외국인 국내관광객에 해당), 같은 국가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거주자,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사는 거주자 등 3가지로 분류할 것을 권장한다.

2. 지역 관광위성계정(TSA)

앞 절에서 설명한 UNWTO(2008)의 IRTS 2008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의 목적은 구체적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관련된 경제 및 산업정책을 준비하는데 개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와 과정을 거치는데 유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IRTS 2008에서 권고되는 관광통계는 관광활동의 양이나 행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나타내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소비지출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금전적 가치로 제시되는 관광활동의 결과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나 산업활동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저개발국가나 지역의 발전대안으로서 관광활동이 주목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위성계정(T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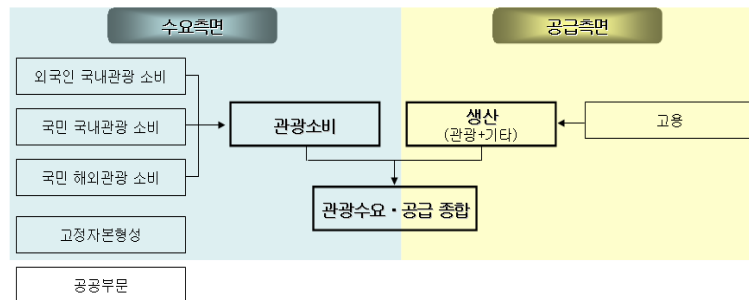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환경이나 문화 등 고유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발생시키고 관련된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첨단이나 중화학 산업과 같이 관련된 유무형의 기반시설 공급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우후죽순 식으로 제출되고 있음을 앞 장의 충청남도 시군들에 의해 제출된 지난 2017년, 일 년 동안의 지방투자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특히 규모가 큰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의 결과로 충남에서 제안한 사업들 중 다수가 탈락된 바 있는데, 이들의 탈락 사유가 주로 ①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수요와 사업 규모 결정사이의 피드백 장치 결여와 함께 ②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성 결여 등으로 요약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탈락사유들은 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대행하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행)와 한국지방행

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 대행)의 관련 지침과 직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사업수요를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방법에 기초하여 전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은 물론 이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언급된 합리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통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 설명들이 제공되어 있다. 따라서 탈락사유의 대부분은 방법론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합리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통계, 구체적으로 사업수요와 직결된 ‘관광통계의 미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내의 특정 지역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U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등에서는 각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의와 함께 이의 실제파악을 위한 지침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제기구들에서는 경제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의 규명과 실제 파악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으로 대변될 수 있다(WTO, 1999,1998; OECD, 1999a,b, 1998 외).



- CEC, OECD, WTO and UN(2001)의 내용을 정리

(그림 3-3) 관광위성 계정의 구성과 체계

이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TSA)의 핵심적 구조와 체계는 앞의 (그림 III-3)에 정리된 바와 같다. 관광위성계정 TSA는 앞 장들에서 설명한 정책이나 사업의 규모를 특정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수요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광객 또는 방문객 수를 넘어서, 이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역관된 경제적 가치나 기여도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해 전자가 관광목적의 방문객들의 양이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면, 관광위성계정은 금전적 가치(value) 차원에서 관광현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학 이론이 적용되어 본격적인 체계적 분석에 입각한 대안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TSA의 이용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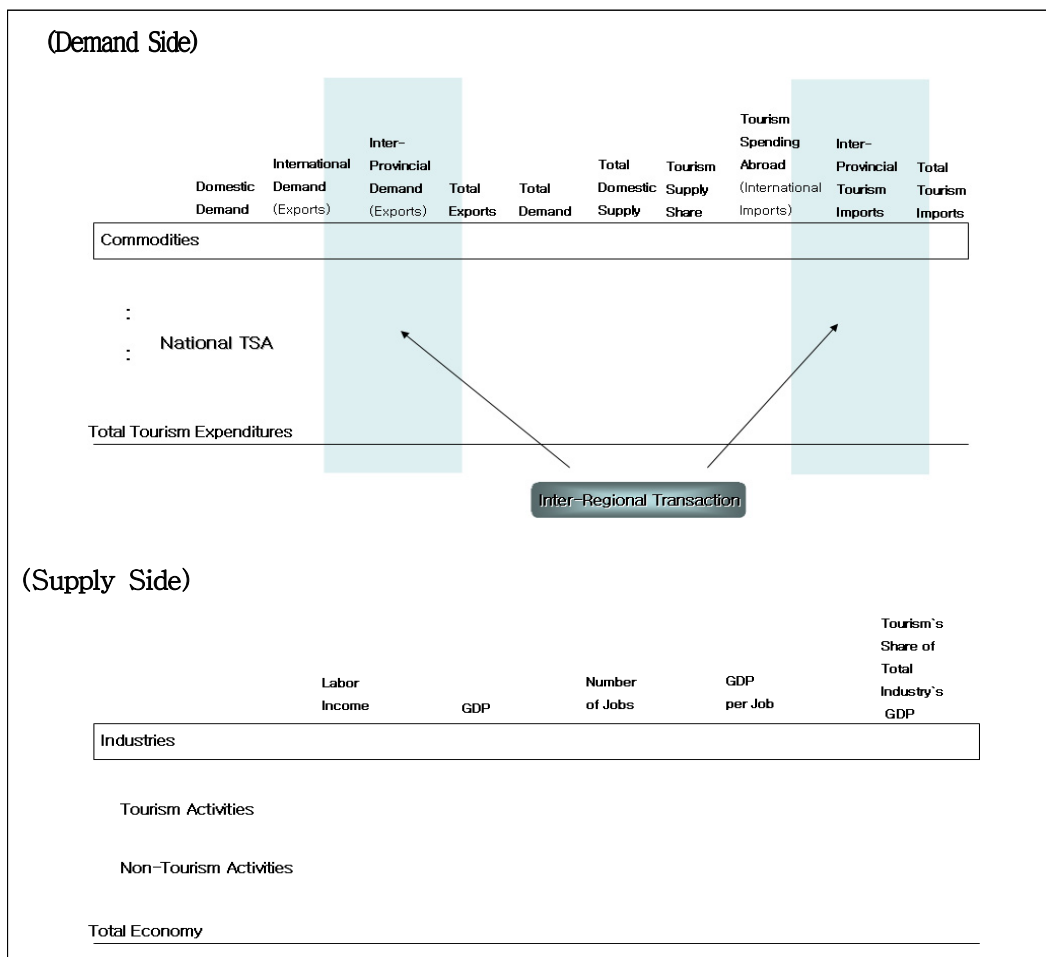
참고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의 여행실태조사 자료의 축적이 요구되며,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경제의 중심계정인 국민계정(SNA)의 부속계정으로서 관광 부문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TSA 작성과정 사례들과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지역 관광위성계정

일반적으로 개별 지역들은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endowments)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관광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지역발전의 주요 대안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개인들 삶의 질 개선과 환경 친화적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다양한 관광정책 및 계획이 우후죽순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기초통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이며 자의적으로 준비된 정책과 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첩경이 되며, 이는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지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들에서는 그 결과가 국제적으로 또 지역간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광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초통계 및 분석수단인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제안했음이 앞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TSA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경제 단위의 계정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이 당면한 경제환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지역경제 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s)의 관광부문 위성계정으로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최초의 지역경제 단위의 TSA인 Barber-Dueck and Kotsovos(2002)가 제시한 캐나다 PTSA(provincial TSA)의 핵심 내용은 다음 (그림 3-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국민경제 단위의 TSA에서 지역간의 관광거래(inter-regional tourism transaction)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TSA에서 이러한 지역간 관광거래는 지역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방문객들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것이다. 즉, 특정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출발지역과 경유지역이 구분되어 조사정리된 이들의 소비지출 패턴이 정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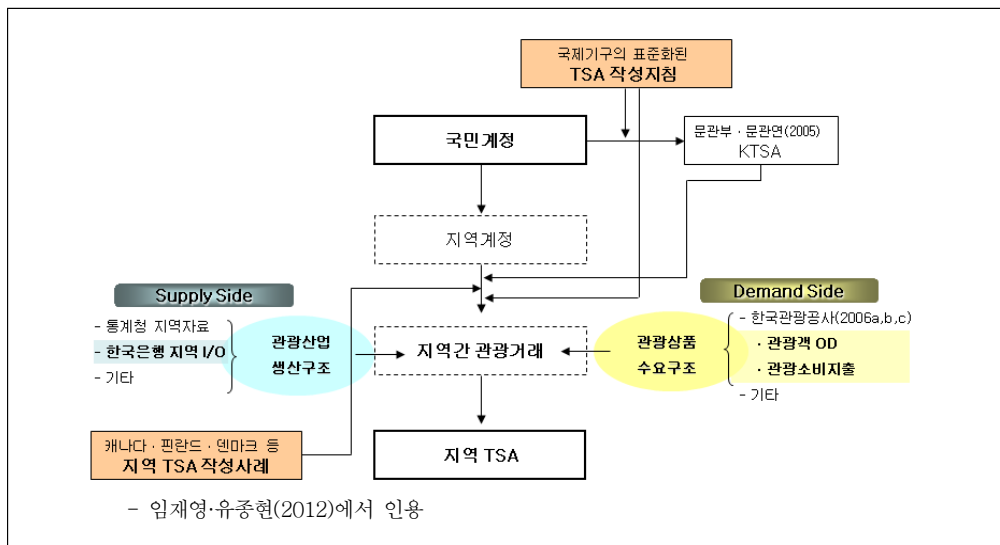


- 자료: Barber-Dueck and Kotsovos(2002) 참조 작업.

(그림 3-4) TSA와 지역 TSA의 관계(캐나다 PTSA의 예)

이러한 지역 TSA의 핵심사항이랄 수 있는 지역간 관광거래가 의미하는 바는 방문객들이 관광목적지나 경유지에서 발생시킨 소비지출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구체화하며, 다시 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관련된 소득과 일자리 형성의 메커니즘이 경제이론적으로 규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준비되고 고안되는 정책의 실효성은 그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관광부문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인과관계(causation)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준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점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들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림 3-5)는 임재영과 유종현(2012)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지역단위 TSA의 작성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역시 여행실태조사 자료와 지역계정인 한국은행의 IRIO 표를 활용하여 간접추계작업을 통해 2005년 기준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 결과를 다음 <표 3-3>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이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역 내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가 제공될수록 지역TSA의 완성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작업이 요원한 충남 지역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임재영·유종현(2012)의 지역 TSA 작성과정

〈표 3-3〉 지역별 관광부가가치(TVA)와 관광고용 추계결과(2005년 기준)

구분	부가가치(십억원)			취업자(천명)		
	총부가가치(A)	TVA(B)	B/A	총 취업자(C)	관광고용(D)	D/C
서울	199,095.5	2,278.6	1.1%	3,922.6	88.7	2.3%
인천	41,514.4	431.8	1.0%	808.2	20.4	2.5%
경기	170,664.1	1,648.7	1.0%	3,489.9	69.6	2.0%
(수도권)	411,274.0	4,359.1	1.1%	8,220.7	178.7	2.2%
대전	20,749.5	224.2	1.1%	432.2	10.4	2.4%
충북	24,626.7	327.4	1.3%	593.1	16.5	2.8%
충남	45,573.1	582.5	1.3%	919.6	29.8	3.2%
(충청권)	90,949.2	1,134.0	1.2%	1,944.8	56.7	2.9%
광주	19,128.0	167.8	0.9%	429.2	8.8	2.0%
전북	24,359.2	443.5	1.8%	689.1	24.5	3.6%
전남	44,256.9	572.3	1.3%	871.3	33.6	3.9%
(호남권)	87,744.1	1,183.7	1.3%	1,989.5	66.9	3.4%
대구	28,100.5	215.4	0.8%	728.0	11.1	1.5%
경북	58,585.9	568.5	1.0%	1,133.7	31.0	2.7%
부산	47,785.9	806.9	1.7%	1,127.4	37.9	3.4%
울산	40,464.1	91.6	0.2%	411.6	4.0	1.0%
경남	56,072.2	635.4	1.1%	1,262.4	30.4	2.4%
(영남권)	231,008.6	2,317.8	1.0%	4,663.0	114.3	2.5%
강원	23,582.5	1,114.5	4.7%	579.9	51.4	8.9%
제주	7,423.8	502.0	6.8%	203.9	24.7	12.1%
전국 계	851,982	10,611.1	1.2%	17,602	492.7	2.8%

- 임재영·유종현(2012)에서 인용

Barber-Dueck and Kotsovos(2002)나 임재영·유종현(2012)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지역 TSA 작성의 성패는 지역간 관광거래의 구체화이다. 이러한 지역간 관광거래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 O/D(origin/destination) 자료와 이들의 거주지역인 출발지(origin)와 관광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를 포괄하는 관광목적지(destination) 사이의 방문객 이동규모와 이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소비지출과 관련된 조사자료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 이후로는 이러한 여객 O/D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¹⁵⁾. 따라서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경제 단위에서 지역 TSA의

작성을 위해서는 자기 지역을 내방한 방문객들의 출발지역 및 경유지역 등을 포함해 소비지출과 같은 이들의 구체적 관광행태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서 전라북도를 들 수 있는데, 전북은 지역 내 여행실태조사는 물론 지역 TSA의 작성이 함께 이루어진 대표적 지역이다. 반면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지역 TSA 작성을 시도한 바 있다.

3.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¹⁶⁾

1) 지역 관광실태조사의 필요성

지역의 관광 실태조사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광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과 관광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의 수집을 위한 것이다.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지역관광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여행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관광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관광정책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은 탁상에서 만든 주관적인 정책이 되거나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15) 원시자료 내에는 여객 O/D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조사자료의 검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16) 본 절은 본 연구과제의 비상임연구위원 조광익교수(대구가톨릭대 관광경영학과)의 집필본이다.

높다는 것은 주지의 상식이다. 그리고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지역 관광 실태조사는 지역관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연구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지역 실태조사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많은 광역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등 주요 지자체의 관광 실태조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급된 각 사례지역별 사례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지역관광 실태조사 사례분석을 위해 여기에서는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사례조사 내용이 정리·제시된다. 총 11개의 개별 항목들은 다음 <표 3-4>에 정리되며, 이러한 세부항목별 구분의 의미는 지역별 사례조사의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범주별로 장차 충남 지역의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표 3-4>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항목

no.	항목	no.	항목
1	조사주체	7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2	조사대상	8	표본추출방법
3	조사주기	9	자료 확보방법
4	조사기간	10	설문지
5	조사방법	11	비고
6	조사지점		

참고로 지역의 관광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잠재적인 방문자와 지역주민들을 포괄하여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관광 실태조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지역단위로 설명된 지역관광 실태조사 사례를 요약하면 <표 3-5>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주체에 대해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주체는 주로 시도 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이나 마케팅담당 조직(서울마케팅주식회사)이 담당하며, 실제 조사는 여론조사업체(닐슨컴퍼니 코리아 등)가 수행하고 있음. 일부 지역(경남)에서는 조사의 일부를 통계청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음은 조사대상에 대한 부분이다. 각 지역별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대부분 지역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임. 일부 지역(경남)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잠재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조사의 주기 측면에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대체적으로 1년과 2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방법론 측면에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정량조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이다.

조사지점 측면에서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지점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지역별 교통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역 시도를 권역으로 구분한 후,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8~10개 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을 보면,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확률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계통추출법이나 다단계 층화추출 등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의 표본규모 및 오차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등 두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외국인 관광객 유효 표본 규모는 800~3,000명 수준이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2,000명~12,00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 및 정비된 지역의 관광실태조사의 공신력과 관련된 정부승인통계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관광 실태조사 중 정부(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2006년 정부승인을 받았으며, 경남은 2007년, 부산은 2008년 정부승인을 받았으나, 경남은 2017년 중지 승인을 받았고, 부산의 경우 2016년부터는 관광실태 조사를 빅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요약표*

구분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강원	경남
조사주체	서울관광개발(주) (닐슨 헨리리코리아)	부산발전연구원	경기관광공사 (휴파커스컴퍼니)	대구경북연구원 (주원서치코리아)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조사대상	외국인 (서울 여행 후 출국하는 외래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15세 이상) 외국인(15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조사주기	1년 (2009년부터 시행)	2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1년	불특정 ('00, '04, '05, '10, '15, '17)	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년(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이후 중단)
조사기간	- 1차 조사 2016.6.25 ~ 7.3 - 2차 조사 2016.10.10 ~ 10.21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매월 주중, 주말조사)	분기별 1회 조사	2017년 4월~2018년 1월 분기별 1회 조사	2014년 3월~ 2015년 2월	계절별 1회(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방법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중국어 설문면접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조사지점	인원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내국인: 기본 8개 지점+여름 성수기지점 추가 외국인: 지역별 교통거점	- 34개지점(내국인 21, 외국인 3, 공통 10) - 경기를 4개 권역으로 구분 - 4개 권역에서 최대 4개 관광지 선정 - 시군별 1개(최대 2개) 선정	-	내국인: 강원도내의 10개 관광지 외국인: 강원도 주요 관광지	- 40개 지점 - 주요 관광지중 시군별 1곳(총 20) - 시군별 2개 관광지로 한정 조사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3,000명(1차/2차 각 1,500명) 95% 신뢰수준+1.79%p	내국인 2,000명 외국인 200명	내국인 3,500명(95% 신뢰구간 ±2.5%p) 외국인 1,500명(95% 신뢰구간 ±2.5%p)	내국인 2,000명 외국인 1,000명	내국인 3,000명 외국인 1,000명	내국인 12,000명 외국인 800명 (2012년)
표본추출방법	계통추출법		계통추출법	- 내국인: 계통추출법 - 외국인: 유의할당	- 내국인: 비례할당 후 단순무 작위추출 - 외국인: 편의추출	- 시군 관광지 별 비례 배분 후 조사지점 선정 - 단순무작위추출
자료 확인방법	출근면접조사 (Exit poll)	계절별 조사지점 표본수 차별화 봄(17%, 여름(38%, 가을(23%, 겨울(23%	현장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자기기입식	현장 면접조사	현장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2종(내/외국인) - 외국인은 5개국 언어	- 구조화된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비고	-	정부통계승인(2007년) (*16부터 빅데이터분석으로 대체)	-	-	정부통계승인 2006년	정부통계승인(2008년 중지 취소승인(2017년

- * 표 안의 내용은 부록 2에 첨부된 지역별 사례조사 내용을 토대로 요약된 것임

제4장 충남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방안

앞서의 장들에서는 충남의 관광통계의 미비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관광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광통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먼저 앞 장들에서 논의된 실태분석과 국제기구 권고안 및 타지역 사례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이 제시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충남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된다.

1. 실태분석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한 충남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의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와 설명들은 결국 충남에서 요구되는 관광통계의 조사와 정비과정에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일수록, 향후 조사·정비되는 지역의 관광통계는 관광을 매대로 하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앞서 개별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을 통해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지역 관광통계 실태분석의 시사점

이용 가능한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시군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서 재정투자사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투자사업 중 상당수가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앞서 2장에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재정사업들의 심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KDI의 예비타

당성조사 지침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사업들의 진행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참고로 KDI의 지침이 대형 재정사업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라면, 현실의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은 주로 LIMAC의 지침에 입각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지침에 부합되게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준비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과 유관한 기초 관광통계가 요구되나, 아쉽게도 2017년 말 현재 충남의 이용가능한 지역관광통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참고로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 재정투자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지역 내 관광통계로는 ①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의 관광지별 집계자료 중, 충남 내 관광중심지 134개소의 집계자료’와 그리고 ②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의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된 여행목적지역별로 제시된 광역시도 단위 충남 자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유이한 두 자료의 경우에도 지역 내의 관광현상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지침에 입각한 분석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관광개발 관련 재정투자사업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는데, 이러한 여러 형태의 관광개발 사업수요를 특정해서 그의 미래 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요구된다. 다양한 관광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앞서 2 장의 관련 지침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현재 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관광사업 유형별로 그 수요의 추계작업이 가능한 통계환경이 사업을 준비하는 시군 단위 이하의 소규모 지역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수요의 미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계열(time series)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3개 시점 이상의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추세변화의 방향, 즉 해당 변수의 변화율이 체증 또는 체감적인 변화의 형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의 관광통계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효과적인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을 위한 지역단위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역이란 재정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준비주체인 시군 이하 단위의 소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집계자료의 생산방식에 대한 수정보완과 지역 내 관광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이 요구되는데, 결론적으로 두 방식의 혼합(survey mix) 및 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집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미시적(micro)이고 구체적이므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관련수요의 추계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사지점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등 보완해서 지역 관광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조건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시군 이하 단위의 관광수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의 유료 입장객 중심의 집계로 인해 조사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의 여지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주로 국가나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통과가 실제로 요원한 시군단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조사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거시적(macro) 측면의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미시적 성격의 집계자료와 상보적(complementary)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지역의 관광관련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의 준비에 대한 평가가 현금흐름(cash flow) 중심의 기술적 평가만이 아니라 중·장기의 지역경제 성장경로(regional economic growth path)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국제기구들에서 공통으로 권고하는 사항인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에서 관광과 관련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나 산업활동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한 요구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광위성계정(TSA)임이 설명되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관광거래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광객들의 지역간 흐름(O/D) 자료와 이와 관련된 여행 전과 중, 그리고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8년 이전까지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던 이러한 정보가 관련통계 조사방법의 재편으로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다시 말해 광역시도 단위나 기초지자체 단위와 상관없이 2009년 이후로 현재는 지역간 관광거래의 규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TS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입안의 실효성 제고와 같은 장점의 다양함 때문에라도,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과정에서 관련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지역관광통계 자료들을 활용한 지역 TSA의 작성과정은 본문의 설명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이미 확정적이며, 선행적 수준에서의 기초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음이 제시되었다.

2) UN WTO(2008), IRTS 2008의 시사점

IRTS 2008은 1차적으로 국가단위에서 보다 정확한 관광통계의 생산, 각 국가 간 관광통계의 비교 등을 목적으로 관광과 관련한 기초 개념, 수요 및 공급 차원에서 관광의 특성, 관광통계 생산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단위에서의 관광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 및 지역의 관광통계 생산 기준과 내용이 일관성·체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RTS 2008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통계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충남 관광통계에 대한 IRTS 2008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충남 관광통계 생산의 필요성

IRTS 2008에서는 국가의 하부 단위, 즉 지역 차원에서 관광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RTS 2008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관광객들의 특성과 평가를 확인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관광객들의 특성과 평가를 확인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광통계가 이미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계와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RTS 2008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관광통계와 지방정부의 관광통계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면 두 통계 모두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통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중심으로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충남 관광통계 목적의 명확한 설정

충남 관광통계의 세부 범위·방법·내용 등을 설정하기에 앞서 충남 관광통계의 생산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통계의 생산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통계가 설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이 명확해야 향후에 안정적으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참고로 관광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관광통계의 목적 및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면 안정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남 관광통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 간에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충남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설계 실시

IRTS 2008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광통계를 생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IRTS 2008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실제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각 국가들이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충남 관광통계 역시 IRTS 2008의 기본 원칙 등은 참고하되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충남 관광통계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부합하는 관광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관광통계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 기준 및 방법 등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전에 충남 관광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설계 및 검증이 없다면 실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계 명칭은 하나이지만 각 연도별 통계 데이터는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통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RTS 2008의 주요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할 때 충남 관광통계 조사 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생활권 설정 범위 및 방법

관광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활동이다. 따라서 일상생활권의 범위 설정에 따라 관광활동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여행 실태조사 등 기존 관광통계들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상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 즉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가 있는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인지가 관광활동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충남의 A군에 거주하는 주민 B가 1년에 한번 A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했다 하더라도 관광활동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다.

IRTS 2008에서 일상생활권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출근, 통학 등 일상적·정기적인(routine) 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학교)이 있는 지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앞서 예시한 주민 B의 활동은 관광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소개되고 있는 스테이케이션(Stay + Vacation) 등 거주지역 행정구역 내에서의 관광활동도 관광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면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방문 빈도 등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충남 이외 지역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 충남 주민,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충남의 관광통계 생산 방법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광통계 생산 방식은 설문조사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다시 관광지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전국 가구조사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 수 또는 지출액 등을 추정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 관광통계의 주요 목적이 관광객 수 파악인지, 관광행태 파악인지 등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③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설계 방식

만약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한다면 대표성 있는 표본 설계가 중요하다. 충남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조사 지점, 조사 시기, 조사 지점별 표본 규모 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각 기초지자체의 조사 지점 수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상이하게 할 것인지, 1년에 몇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각 조사 회차별로 조사 지점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을 상이하게 할 것인지, 각 지점별 최소 표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전국 가구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지역별 표본 추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에 몇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실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 가구조사의 경우 표본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충남 여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많은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운용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 전국 가구조사 방식 보다는 관광지 현장 조사 방식이 합리적인 관광통계 생산 방식으로 판단된다.

④ 세부 통계 항목의 도출

IRTS 2008에서는 관광객의 일반적인 특징(성별, 연령, 직업, 소득, 교육 수준 등), 관광여행의 특징(여행의 주요 목적, 관광상품, 여행 기간, 목적지, 교통수단, 숙박 시설, 지출액 등)을 통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남 관광통계도 통계의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IRTS 2008의 기본적인 항목 외에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충남 관광통계 생산 체계(주체별 역할 등)

마지막으로 충남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광통계는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생산된다. 충남 관광통계가 연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 체계 역시 안정화 되어 있어야 한다. 충남 관광통계의 설계, 생산을 위한 실사 진행 및 관리,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주체,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향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충남 관광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의 활용도도 제고될 수 있다.

3) 타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의 시사점

이 외에 앞의 3 장의 2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국내 타 지역들의 지역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충남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표 4-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는 총 11개의 항목별로, 타 지역들의 지역 관광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향후 충남의 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시사점들이 정리되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4-1> 충남 관광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대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제언)

구분	내용
조사주체	- 조사주관: 충남연구원(※ 필요시 유관경력 외부교수 참여) (실제 조사는 조사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
조사대상	- 내국인(15세 이상) - 외국인(15세 이상)
조사주기	- 원칙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좋음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주기로 조사 실시
조사기간	- 분기별 조사 또는 계절별 조사
조사방법	- 정량조사 - 필요시 외국인 관광객 조사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병행 실시
조사지점	- 내국인: 충남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사. 시군별 2~3개 지점 조사 - 외국인: 충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방문 외국인 조사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 내국인: 유효표본 규모 최소 2,000명~3,000명 - 외국인: 유효표본 1,000명
표본추출방법	- 내국인: 확률추출법 (계통추출법) - 외국인: 유의할당, 편의추출
자료확보방법	- 현장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2종(내/외국인) 사용 -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비고	- 장기적으로 정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함

①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주관은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성패는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지역관광과 여론조사(혹은 통계조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이 실태조사의 주관기관으로서 관광과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충남 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정책연구기관이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 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실제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여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실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충남연구원은 조사설계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표집방법, 조사원 선정 및 교육 등 조사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조사업체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대상의 경우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인 지역관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을 방문한 15세 이상의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이외에 전국의 내국인 잠재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거나, 여기에 지역 관광업체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관광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충남도의 경우 지역관광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겠다.

- ③ 충남지역 관광실태 조사의 조사방법으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모두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량조사의 경우,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충남 관광에 관한 균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남 관광에 대한 심층적인 관광 정보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경우 정량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과 같은 정성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④ 충남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주기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최소 2년 주기로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사주기가 길어질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 홍보·마케팅의 실시라는 지역관광 실태 조사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⑤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분기별 혹은 계절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절이나 분기에 따라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관광지의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충남 주요 관광지 통계’ 등 사전 자료를 토대로 분기별 혹은 계절별로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유효표본이 사전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

- ⑥ 여섯 개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점은 충남 지역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의 특정 시군의 유명 관광지가 조사지점으로 많이 포함되게 되면, 충남 방문 관광객 수가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 충남 지역의 권역별로 균등하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남의 개별 시군별로 2-3개 지점이 조사지점으로 균등하게 선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과 달리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사는 현실적으로 충남의 주요 관광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⑦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유효 표본의 크기는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최소 2,000명-3,000명 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본오차가 커지고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충남 방문 관광객 수 추정의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유효 표본의 크기는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⑧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은 가능한 확률표집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확률적인 표집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모수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률표집방법으로는 계통추출법(systemic sampling)이 있다.

참고로 계통추출법은 조사지점에서 매 k번째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편의(bias)가 개입될 여지도 적고 표집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조사지점의 방문자 수가 적은 경우 확률표집방법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비확률추출법인 편의추출 혹은 유의할당 추출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⑨ 충남관광 실태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설문지는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조사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구조화된 형태의 설문지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용 설문지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 ⑩ 충남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의 경우, 현장 면접 방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장 면접 방법은 설문지를 토대로 조사원이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질문을 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며, 자기기입식 방법은 면접방법과 달리 응답자 스스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법이다. 조사원에 의한 현장 면접조사의 경우 자기기입식 방법에 비해 조사가 까다롭고 조사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충실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의 경우 현장 면접 방식에 비해 조사의 용이성과 편의성은 높은 반면 응답의 충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경우,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⑪ 충남관광 실태조사의 목적은 충남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충남 관광객 수의 추정이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이다. 충남관광 실태조사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부승인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충남관광 실태조사가 정부승인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 관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개별 항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주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국제기구들의 지침이나, 지역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제의 재정투자심사(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실제 조사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청취는 물론 여러 차례의 사전조사(pre test) 과정을 통해 조율 및 조정 작업이 요구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결과의 합리성은 제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 지역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및 소요예산의 산정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표에 제시된 유효표본 수는 실태조사의 예산 규모와 산정과 직결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의 조사 작업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사결과의 현실적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즉, 파일럿 써베이를 포함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사의 과정 및 내용, 방법 등은 계속 조정되는 피드백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충남도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참고로 이 방안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며, 실제의 조사 및 정비 전과 중, 그리고 후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피드백 장치가 작동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특히 지역에서 관련된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조사정비 작업의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제기되었던 기초 지자체 시군 단위의 재정정책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은 관광과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 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다음(그림 4-1)에 요약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와 관련된 부문과 그리고 각 단계별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각 단계별 내용은 지역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정책 또는 사업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충남도 입장에서 각 단계별 내용을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설명된 정합성을 담보한 지역통계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① 관광지점별 집계자료의 보완 및 정비 작업과 그리고 ② 지역 내 관광실태조사의 수행을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자 사이의 조정과정을 통해 두 자료의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각 자료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집계자료가 미시적 성격이 강하면서 시군 이하 단위의 소지역에서 관광개발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에 유용한 점을 감안하여, 이 자료의 현실적합성의 제고와 중장기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서 충남 내 시군들에 유용한 집계자료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그림에 포함된 각 파트별 세부단계는 충남도청 실무부서와 연구원 연구부서 사이에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본 연구에서 논의된 현실정합성을 확보한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파트 3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은 본 연구와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임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남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조사된 여행실태조사만으로 충남 지역 내 관광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이 조사를 통해 도 내 시군단위에서 관광총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행태가 규명되어 필요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 정책마련에 유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와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위낙에 당연한 내용이므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지역 내 여행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조사 주체, 주기, 지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 절의 <표 4-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른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정리된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표 안에 포함된 표본 수나 방법 등을 통해 조사 작업의 규모나 소요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조사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구분도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파일럿 써베이 등의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사결과의 현실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중장기 목표인 지역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TSA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경제통계의 중심인 국민계정체계(SNA)와 연동되어야 하므로, 지역 TSA 작업도 지역경제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s)인 한국은행의 지역간투입산출(IRIO)표¹⁷⁾의 작성결과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TSA 작업은 본 연구과제와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7) 현재 국내에서 UN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SNA에 입각한 지역경제 통계인 지역경제계정은 한국은행의 지역간 투입산출(IRIO)표가 유일한 상황이다.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 요 약

이용 가능한 재원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사업들 역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심사 하에 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내용(규모, 위치, 유형 등)이 반영된 사업기본계획의 준비여부, 그리고 ②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참고로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수요전망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등의 비용 산정과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의 추계 과정과 그 결과이다.

즉, 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은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에 입각해서 수요전망을 수행할 기초통계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그 결과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란 구체적으로 2017년의 일 년 간 이루어진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결과로서 이와 함께 회신된 투자심사 의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전망 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충남의 지역 내 관광통계의 생산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들에게 관광통계와 이들의 정책활용을 위한 관광위성계정(TSA)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UN·WTO(2008) 『관광통계 권고안(ITS 2008)』의 내용과 시사점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관광실태 조사사례에 대한 항목화화 항목별 구체적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들은 결국 충남 지역관광통계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충남의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관광지 중심의 유료 관광객 집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과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관광실태조사의 병행을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관광통계 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은 앞 장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충남의 경우에 적합하도록 정리·제시 되었다. 결국 이렇게 집계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충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의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관광통계시스템은 이질적인 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국가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등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체계화됨이 언급되었다.

2. 제 언

본 연구과제에서 논의된 기초통계의 조사와 정비 업무는 지역연구원의 기본적 책무로서, 그동안 이러한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노출한 것은 전적으로 충남연구원 연구부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유무형 기반시설 활용한 조사 및 정비 작업의 매진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단 조사 및 정비된 통계는 일회성 작업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한 업데이트 작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관련된 후속작업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외에도 조사되고 정비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현실적합성이 제고된 통계시스템을 갖추므로 우리 지역들에서 준비하고 제안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지역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통계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므로, 관련된 활발한 연구 작업의 수행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의 구비는 연구과정에서의 자의성과 주관적 판단을 상당히 개선해주는 것이 일반적임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을 통해서 계속 피력되었다. 따라서 구축된 지역 관광통계시스템은 지역 내 관광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게 되므로, 이를 위한 연구사업의 체계화 작업도 한편에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한 연구대상에 대한 판단이 소수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도출이다. 즉 통계의 생산과 수요에 관련된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과 연구원 연구담당자 사이의 컨센서스는 물론 통계시스템을 수요하게 될 다양한 연구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 장치의 상시화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끝내는 작업이 아님, 유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생명력을 갖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관광통계시스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홍배(2003), 『정책평가방법: 비용편익분석론』, 나남출판사.
- 임재영·유종현(2012), “지역 TSA작성을 통한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지역의 관광부가 가치(TVA) 추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pp.73~95,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임재영·이종운(2017), 『타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확보사례와 충남에 주는 시사점』, 현안연구 (2017. 2. 10), 충남연구원.
- 송지영(2016.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변화』, <재정사업의 환경변화와 관련조직 정비방향성 모색>, 충남공공투자연구포럼 주제발표 자료.
-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연구팀(2015), 『충청남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안)』, 충남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각년호¹⁸⁾),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5),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2015),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2015),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18) 계속 수정보완(revise) 되어 제공(LIMAC(각년호)도 동일)

- Barber-Dueck, C. and D. Kotsovos(2002),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s for Canada, 1996,” *Research Paper Catalogue No. 13F0063XIE*, <http://www.statcan.ca>.
- United Nations(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2), *Designing the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Framework*.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Eurosta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Brussels/ Luxembourg, New York, Paris, Washington, D.C., 1993.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 and Employment*.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a),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DSTI/DOT/TOU/SAT(99)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b),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The Employment Module*, DSTI/DOT/TOU/STAT(99)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8), *A Tourism Satellite Account for OECD Countries*, DSTI/DOT/TOU/STAT(98)1.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0),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Accounting-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 United Nations WTO(2008) ,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9),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The Conceptual Framework*.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8),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1998), *1996/7 WTTC Travel and Tourism Report*.

부 록

부록 1. 2017년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구분	도청사		중앙집사	
	no.	시군	사업	no. 시군 사업
제 1 차 (1/4)	-	-	-	1 관광마케팅과 2020계통세계군문화에스포
				2 소방행정과 응청남도소방복합시설조성사업
				3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4 계룡시 계룡신도안~대전세동간광역도로개설
				5 청양군 매운고추채취나리조성
제 2 차 (2/4)	no.	시군	사업	no. 시군 사업
	1	도봉청	삭산~원북(거88호)지방도화표장사업	1 인면도관광지개발사업(단지내연결도로)
	2	보령시	오천면청사신축	2 태조산공원산림테포조단지조성
	3	보령시	대전4동행정복합센터신축	3 천안시 천안여성자연환경보존요시설설치
	4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4 부성지구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건립
	5	서산시	제12회서산시민체육대회	5 생활자원화수센터신설사업
	6	논산시	유교문화인문도시논산만들기사업(노강서원정비)	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7	논산시	논산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	7 안흥마리나항만구역조성사업
	8	당진시	2017년읍면동체육대회개최	
	9	당진시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건립	
	10	부여군	부여세계유산ICT융복합콘텐츠구축사업	
	11	서천군	행복나눔마을공동체활성화	
	12	예산군	예산수력사유물전시관구축	
	13	태안군	태안도로역(너나들이센터)조성사업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표 계속)

구분	도청사			중앙청사		
	no.	시군	사업	no.	시군	사업
제 3 차 (3/4)	1	천안시	프로배구대회지원	1	도봉청	태안기업도시월비특구연결교량건설
	2	천안시	2017제1회천안시민체육대회	2	도봉청	충남권역재활병원건립
	3	공주시	주미산치유의숲조성사업	3	천안시	천안북부HIT일반산업단지조성
	4	보령시	목계문화체육장조성	4	보령시	토정비결체험관건립
	5	보령시	보령버섯산업학교조성	5	아산시	원포서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
	6	아산시	배방주차터외조성사업	6	논산시	논산근대역삼문화촌조성
	7	아산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조성사업	7	서천군	문화사제원조성
	8	태안군	태안UV렌드조성사업	8	예산군	예산호작한농촌체험제상
	9	태안군	생활지원회수제터설치사업	9	태안군	태안군종합철내체육관건립
	10	태안군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10	태안군	사신들의바다순례길조성사업
제 4 차 (4/4)	no.	시군	사업	no.	시군	사업
	1	도봉청	건강마춧줄미레프로바이오텍사업플랫폼기반구축사업	1	도봉청	충남스프츠센터조성사업
	2	천안시	동남·구룡기계임대사업장신축공사	2	천안시	천안제일일반산업단지계세사업
	3	공주시	농산물산지유통시설(ATC)건립지원	3	천안시	태조산공원산업대표초단지조성
	4	공주시	주미산치유의숲조성사업(계집사)	4	천안시	부성지구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건설
	5	공주시	공주원도심행복마을조성사업	5	공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소각로대비스공사
	6	보령시	대형어구어망적치수전장조성	6	서산시	서산수복지구도시개발사업
	7	보령시	버섯산업학교조성운영사업(계집사)	7	부여군	홍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8	보령시	췌개포구평소화조성사업	8	부여군	금강누경선유길조성
	9	아산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9	부여군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10	아산시	아산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10	부여군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11	계룡시	제24회충남장애인체육대회개최	11	태안군	태안군종합철내체육관건립
	12	서천군	물벼들생태유해마을조성사업	12	태안군	안흥마리나항만조성사업
	13	청양군	매운고추채취나리조성사업	13	아산시	원포서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
	14	태안군	제70회충청남도민체육대회			

부록 2. 충남 도내 134개 관광지점별 입장객 수

지역	관광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주시	5도원시범마을	-	-	-	-	-	-	84,777	117,009	161,359	-	-	-	-
	갑사	201,668	283,667	238,923	509,503	419,255	264,249	276,849	266,122	312,089	-	-	-	-
	갑사별동네이	-	-	-	-	-	-	2,648	2,542	2,571	-	-	-	-
	계룡산국립공원(갑사)	-	-	-	-	-	-	-	-	-	256,866	262,956	263,895	126,577
	계룡산국립공원(동학사)	-	-	-	-	-	-	-	-	-	338,021	308,800	416,059	308,323
	계룡산국립공원(명사굴)	-	-	-	-	-	-	-	-	-	-	6,665	21,925	17,511
	계룡산국립공원(상선)	-	-	-	-	-	-	-	-	-	56,550	63,814	73,289	44,639
	계룡산국립공원(산원사)	-	-	-	-	-	-	-	-	-	92,089	88,349	80,824	59,627
	계룡산국립공원(거석굴)	-	-	-	-	-	-	-	-	-	-	4,942	19,850	15,810
	계룡산국립공원(천정)	-	-	-	-	-	-	-	-	-	179,710	173,453	150,330	125,552
	계룡산도예촌	-	-	-	-	-	-	25,064	32,140	50,193	-	-	-	-
	계룡산유스호스텔	-	-	-	-	-	-	47,084	34,087	30,165	-	-	-	-
	골드라비(CC)	-	-	-	-	-	-	-	-	-	-	-	-	38,362
	곰나루관광단지	-	210,411	248,762	17,296	-	-	281,999	235,514	78,936	-	-	-	-
	공산성	86,453	166,412	174,056	301,051	433,755	155,056	339,856	192,580	214,575	248,426	136,020	323,467	378,535
	공주현유마을	-	-	-	-	-	-	9,333	44,515	53,847	71,601	56,105	88,387	95,111
	공주민속국립박물관	6,375	8,222	1,870	-	-	-	5,195	4,223	5,003	-	-	-	-
	공주유스호스텔	-	-	-	-	-	-	32,085	28,974	37,815	-	-	-	-
	국립공주박물관	322,706	531,923	280,316	238,497	387,346	366,221	530,099	440,562	452,313	513,481	497,381	539,685	630,246
	동학사	412,756	870,027	505,629	848,767	866,623	795,982	787,984	544,224	109,380	-	-	-	-

	미곡사	117,689	222,888	240,742	154,449	206,122	215,518	273,392	284,226	392,232	361,144	363,717	336,144	356,086
	미국사템플스테이	-	-	-	-	-	-	1,729	1,894	3,193	-	-	-	-
	미국온천관광지	-	281,475	91,719	44,080	-	-	-	-	-	-	-	-	-
	무령왕릉	197,550	499,397	388,190	461,924	622,667	295,093	575,678	385,627	346,236	-	-	-	-
	백동진관소리전수관	-	-	-	-	-	14,071	10,949	3,015	3,233	-	-	-	-
	석장리박물관	-	-	-	148,097	75,966	79,767	131,940	113,776	125,609	120,342	127,508	156,129	147,863
	성곡사	54,418	-	69,235	34,061	45,394	70,991	57,328	27,783	33,240	-	-	-	-
	송산리고분군	-	-	-	-	-	-	-	-	-	-	-	-	373,756
	신원사	45,391	74,037	132,289	294,956	177,762	131,248	112,583	112,782	166,855	-	-	-	-
	역사박물관	-	-	-	41,182	54,723	118,527	72,257	64,057	73,674	-	-	-	-
	웅진교육박물관	-	9,402	3,163	13,722	3,645	2,744	-	-	-	-	-	-	-
	이안미술	-	-	-	-	-	2,242	46,043	25,760	134,958	-	-	-	-
	임림미술관	-	65,918	97,713	44,730	38,367	62,754	62,565	65,078	64,953	-	-	-	42,783
	자연사박물관	-	97,314	100,635	129,948	151,389	112,688	105,966	125,294	154,762	184,554	224,544	216,793	245,011
	진통불교문화원	-	-	-	-	-	-	14,583	31,145	43,072	-	-	-	-
	장안전성태공원	-	-	-	-	-	-	525,499	620,072	485,933	-	-	-	-
	지당세계만물박물관	-	29,238	17,820	3,270	9,702	3,738	952	-	1,472	-	-	-	-
	천주교순교자항해비	-	-	-	-	-	-	213,128	201,145	118,533	-	-	-	-
	파충류관충체류관	-	-	-	-	-	9,844	256,833	124,867	127,114	-	-	-	-
	프린세스폴로클럽	-	-	-	-	-	-	-	-	-	-	-	-	73,352
소계		1,445,016	3,350,331	2,670,082	3,285,533	3,492,716	2,700,778	4,945,398	4,126,613	4,778,465	2,449,694	2,404,344	2,681,787	3,139,144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터운	-	21,615	21,620	29,458	43,501	73,660	75,285	167,047	88,164	79,984	45,888	50,015	76,850
	금산이삼관	974,092	1,388,249	1,299,822	1,001,186	1,099,100	773,524	821,193	297,576	754,761	827,870	832,788	55,033	1,055,081

	대문산	8,036	11,303	6,827	35,446	55,010	154,557	147,233	234,418	79,355	-	-	-	-
	서대산드림리조트	22,310	57,339	19,575	27,875	58,645	27,716	33,015	105,293	22,821	-	-	-	-
	에너바라(구대문전트비클럽)	54,378	81,533	89,987	95,307	86,939	86,411	83,299	82,151	65,421	61,251	57,508	57,066	38,583
	칠배의총	57,272	46,421	27,224	56,000	64,832	46,438	47,555	174,889	45,994	49,558	53,544	56,481	59,729
소계		1,116,088	1,616,320	1,410,055	1,245,272	1,318,927	1,162,206	1,207,800	3,737,174	1,023,216	1,086,663	989,738	218,625	1,210,242
논산시	개태사	-	-	-	98,929	96,611	91,750	90,316	92,220	102,784	-	-	-	-
	관촉사	20,811	50,458	65,705	100,243	109,105	115,349	100,049	100,569	109,765	79,298	40,576	39,117	52,984
	그린투어리즘포럼(매울)	7,565	22,922	43,910	39,539	56,026	103,693	15,482	140,685	114,215	289,089	-	-	-
	논산영채고택	-	-	-	83,269	82,977	83,247	96,633	104,637	119,049	-	32,680	30,912	41,280
	논산돈암서원	-	-	-	72,849	68,235	69,764	68,789	70,553	78,519	-	-	-	-
	대문산	56,650	74,780	88,765	191,918	217,037	231,745	253,450	275,023	310,893	-	-	-	-
	백제군사박물관	-	117,201	102,353	131,653	149,718	88,478	104,383	122,731	117,482	81,129	108,726	125,251	131,865
	탐정적수지	-	-	-	571,436	576,047	586,827	576,932	622,679	747,536	-	-	-	-
소계		85,026	265,361	300,733	1,289,866	1,355,557	1,370,633	1,447,404	1,329,097	1,703,338	430,116	181,962	195,280	226,129
당진군	난지도해수욕장	132,166	171,406	637,532	328,399	270,200	370,227	257,874	120,662	-	-	-	-	-
	도비도	-	-	-	-	-	-	1,691,523	941,638	-	-	-	-	-
	삼괴호관광지	1,950,531	3,496,447	3,120,076	2,946,888	3,169,694	2,492,355	2,466,647	2,899,973	-	-	-	-	-
	성구미포구	-	-	-	-	632,243	989,228	1,265,565	912,836	-	-	-	-	-
	안심포구	-	-	-	-	368,276	731,040	1,001,801	797,206	-	-	-	-	-
	외북마을관광지	212,947	340,019	698,286	1,245,358	2,420,208	2,891,825	3,134,357	2,983,291	-	-	-	-	-
	장고항포구	-	-	-	-	748,269	1,231,045	1,351,301	1,444,706	-	-	-	-	-
	함진포구	-	-	-	-	1,028,375	1,947,781	1,575,867	1,749,386	-	-	-	-	-
	함상공원	-	442,563	247,792	204,485	173,704	167,406	155,778	198,328	-	-	-	-	-

소계		2,350,644	4,450,405	46,137,16	4,724,030	880,439	10,100,907	13,101,713	112,450,66	-	-	-	-	-
당진시	가치시골다리기박물관	-	-	-	-	-	-	-	-	-	96,171	90,763	94,029	103,017
	난지도해수욕장	-	-	-	-	-	-	-	85,827	-	-	-	-	-
	난지섬관광지	-	-	-	-	-	-	-	-	67,801	38,220	42,585	48,289	-
	당진월드아트서커스 공연장	-	-	-	-	-	-	-	-	7,153	54,294	53,227	54,872	-
	노비도	-	-	-	-	-	-	-	488,723	-	-	-	-	-
	삼교호관광지	-	-	-	-	-	-	-	2,938,100	-	-	-	-	-
	성구미포구	-	-	-	-	-	-	-	636,540	-	-	-	-	-
	아그로랜드	-	-	-	-	-	-	-	-	33,706	58,555	70,889	81,143	-
	아미미술관	-	-	-	-	-	-	-	-	-	-	-	54,486	-
	안심포구	-	-	-	-	-	-	-	686,684	-	-	-	-	-
	외목마을관광지	-	-	-	-	-	-	-	2,401,014	-	-	-	-	-
	장고항포구	-	-	-	-	-	-	-	1,465,589	-	-	-	-	-
	한진포구	-	-	-	-	-	-	-	1,855,086	-	-	-	-	-
	함상공원	-	-	-	-	-	-	-	186,216	-	-	-	-	-
	함터수리민속박물관	-	-	-	-	-	-	-	-	34,413	38,658	38,769	31,476	-
소계		-	-	-	-	-	-	-	-	10,884,783	239,244	280,490	299,809	373,283
보령시	개화예술공원	-	-	-	301,504	292,491	329,341	520,117	427,396	466,723	-	-	-	-
	대천연안리객신타미널	-	-	-	-	-	-	-	-	-	-	-	-	146,992
	대천해수욕장	8,854,328	16,549,913	16,407,328	16,742,511	14,088,367	14,319,554	14,382,110	13,654,094	12,125,786	-	-	-	-
	동백관	9,451	27,583	32,820	12,240	9,245	8,896	8,900	11,775	12,484	-	-	-	-
	무장포해수욕장	1,082,184	1,981,382	1,929,988	1,787,200	1,816,160	1,629,710	1,432,170	1,753,813	2,086,082	-	-	-	-
	보령머드체험관	-	-	123,322	54,571	30,526	40,853	36,982	37,255	24,156	10,069	8,302	-	-

	조류 생태전시관	-	-	-	-	-	-	-	-	-	-	75,238	102,143	78,053	98,041	88,760
	춘강대해수욕장	2,344,519	6,830,982	6,824,146	4,700,870	3,899,200	3,179,610	5,098,417	4,481,383	3,149,293	-	-	-	-	-	-
	한산포수관	36,022	46,475	59,177	37,246	64,819	38,133	32,477	32,325	57,167	67,901	104,010	60,542	158,159	158,159	158,159
	화리산자연휴양림	-	-	-	4,252	69,294	44,127	89,061	136,714	129,056	142,374	46,645	74,903	228,117	228,117	228,117
소계		2,969,575	10,133,478	7,498,768	5,668,896	5,002,946	4,120,113	6,850,788	6,878,309	5,865,813	454,907	1,106,605	1,371,435	1,536,999	1,536,999	1,536,999
아산시	국교천변누시터	-	-	-	-	-	219,782	208,840	298,670	248,626	-	-	-	-	-	-
	공세리성지(성당)	-	-	-	-	-	223,786	284,624	244,113	210,613	-	-	-	-	-	-
	광덕산(아산시)	81,411	396,130	260,481	433,180	453,641	425,618	366,372	417,960	275,082	-	-	-	-	-	-
	방장누시터	-	-	-	-	-	4030	6,683	6,623	6,405	-	-	-	-	-	-
	대동누시터	-	-	-	-	-	15,090	30,836	29,976	29,626	-	-	-	-	-	-
	도고온천	348,615	799,548	909,230	1,511,444	1,263,770	1,798,357	2,473,687	2,911,514	2,856,512	-	-	-	-	-	-
	도곡컨트리클럽	46,591	84,980	81,980	86,121	76,294	93,092	75,218	65,291	88,858	-	-	-	-	79,045	79,045
	동천세마울누시터	-	-	-	-	-	4,188	7,370	6,820	6,509	-	-	-	-	-	-
	망정누시터	-	-	-	-	-	7,835	9,064	4,124	3,976	-	-	-	-	-	-
	모산누시터	-	-	-	-	-	3,566	6,916	6,722	6,701	-	-	-	-	-	-
	봉계누시터	-	-	-	-	-	25,509	47,668	46,406	45,683	-	-	-	-	-	-
	삼교천누시터	-	-	-	-	-	1,104	1,918	2,029	2,185	-	-	-	-	-	-
	삼교천변누시터	-	-	-	-	-	202,058	203,680	179,008	174,917	-	-	-	-	-	-
	신장저수지	-	-	-	-	-	2,747	18,213	21,818	21,262	-	-	-	-	-	-
	세계꽃식물원	33,645	130,072	209,340	341,334	185,069	175,157	190,557	162,096	165,377	114,642	121,756	132,076	153,480	153,480	153,480
	송악누시터	-	-	-	-	-	10,247	20,824	20,022	19,509	-	-	-	-	-	-
	순천향누시터	-	-	-	-	-	1,566	2,364	690	-	-	-	-	-	-	-
	신봉누시터	-	-	-	-	-	6,476	10,547	10,352	10,354	-	-	-	-	-	-

	신수남시티	-	-	-	-	-	-	-	6,821	15,423	15,322	15,098	-	-	-	-
	신왕남시티	-	-	-	-	-	-	-	10,157	13,962	13,617	13,044	-	-	-	-
	신정호국민관광지	411,581	663,189	366,814	561,980	436,500	-	-	656,980	651,297	507,627	380,024	-	-	-	151,809
	신창남시티	-	-	-	-	-	-	-	3,500	6,960	6,830	6,621	-	-	-	-
	신흥남시티	-	-	-	-	-	-	-	4,296	6,621	7,038	4,981	-	-	-	-
	신흥유리남시티	-	-	-	-	-	-	-	5,065	9,240	8,418	9,339	-	-	-	-
	아산레일바이크	-	-	-	-	-	-	-	-	-	-	-	-	-	-	-
	아산스파비스	-	-	-	-	-	-	-	-	-	-	-	-	-	-	-
	아산온천	517,378	1,188,436	1,194,097	1,749,020	1,512,865	-	-	1,929,951	2,613,542	3,121,851	2,896,281	-	-	-	-
	아산외암마을	248,629	456,905	380,673	224,356	205,479	-	-	304,090	366,223	315,059	373,555	331,213	404,462	462,408	425,005
	안골남시티	-	-	-	-	-	-	-	16,550	32,680	32,439	31,987	-	-	-	-
	에스케이룸더운CC	-	-	-	-	-	-	-	-	-	-	-	-	-	-	88,548
	염치남시티	-	-	-	-	-	-	-	6,360	11,412	11,293	10,914	-	-	-	-
	영인남시티	-	-	-	-	-	-	-	-	-	3,634	11,127	-	-	-	-
	영인산자연휴양림	117,003	205,222	235,258	186,134	250,194	-	-	195,504	232,140	231,304	285,459	338,807	329,621	336,448	316,020
	은암관광호텔(은진항)	-	-	-	-	-	-	-	-	-	-	-	106,736	357,038	367,762	388,505
	은암민속박물관	130,611	251,510	206,319	142,312	92,939	-	-	78,581	95,586	90,097	93,887	76,627	67,241	73,040	59,705
	은암온천	643,369	1,673,725	1,642,682	1,703,587	3,029,618	-	-	3,549,595	4,620,217	4,995,175	4,443,191	-	-	-	-
	월당남시티	-	-	-	-	-	-	-	2,178	3,781	3,519	3,461	-	-	-	-
	잔전적수지	-	-	-	-	-	-	-	1,924	3,212	3,168	3,127	-	-	-	-
	퍼라다이 스키파크도고	-	-	-	-	-	-	-	-	-	-	-	103,721	444,257	414,727	437,987
	퍼나클랜드	-	-	-	-	164,582	-	-	133,844	133,964	150,480	150,075	111,429	124,526	113,999	110,970
	현충사	375,914	912,454	689,865	527,497	661,238	-	-	481,253	447,913	495,453	484,330	-	-	-	162,422

	임프스미(도농교류센터)	-	-	-	-	-	-	-	-	-	-	66,200	251,839	212,192	351,567	203,894
	장곡사	-	-	-	-	-	-	-	-	-	189,800	363,028	-	154,244	186,265	170,695
	천장호출렁다리	-	-	-	-	-	-	-	-	-	327,156	529,767	-	562,776	768,922	720,327
	청양군포시청소년수련원	-	-	-	-	-	-	-	-	-	12,606	30,747	14,922	27,639	18,551	21,123
	청양목재문화체험장	-	-	-	-	-	-	-	-	-	19,097	29,080	25,200	29,298	20,020	-
	청양중의청소년수련원	-	-	-	-	-	-	-	-	-	27,511	32,288	54,496	43,672	23,655	25,951
	청양고추문화마을	-	-	-	-	-	-	-	-	-	-	-	27,213	25,818	25,344	15,151
	청양동강리오토캠핑장	-	-	-	-	-	-	-	-	-	-	-	3,288	5,622	5,813	5,201
	청양월간산오토캠핑장	-	-	-	-	-	-	-	-	-	-	10,176	26,781	22,662	25,335	24,982
	칠갑산	-	-	-	-	-	-	-	-	-	484,478	628,715	-	-	-	-
	칠갑산도립공원(산장로)	410,735	1,153,448	1,192,969	1,210,436	1,346,864	1,171,388	1,413,255	489,097	-	-	-	-	153,475	567,564	128,557
	칠갑산자연휴양림	73,880	25,172	25,143	26,775	14,962	33,337	26,628	33,036	53,746	53,824	55,824	53,746	42,888	48,681	44,908
	칠갑산천문대	-	-	-	-	-	-	-	-	-	36,558	31,918	25,456	24,173	22,716	15,065
소계		484,615	1,210,908	1,266,728	1,414,156	1,478,426	1,284,635	1,516,784	1,732,000	1,886,903	598,052	1,397,984	598,052	1,397,984	2,147,459	2,110,983
태안군	감은이해수욕장	-	-	-	-	-	-	-	52,206	85,629	50,326	41,935	-	-	-	-
	고남포충박물관	12,161	30,050	21,527	47,844	36,046	42,218	36,377	34,557	19,710	15,050	14,144	15,050	14,144	15,289	18,727
	문선해수욕장	-	-	-	-	-	44,624	50,582	28,340	31,177	-	-	-	-	-	-
	구례포해수욕장	-	-	-	-	-	126,089	147,069	103,728	51,713	-	-	-	-	-	-
	구름포해수욕장	73,110	77,622	80,252	111,143	1,160	22,515	51,104	22,628	36,812	-	-	-	-	-	-
	기지포해수욕장	269,214	301,920	346,893	352,853	39,296	123,721	145,068	76,831	38,827	-	-	-	-	-	-
	꽃지해수욕장	3,150,197	5,450,835	4,707,470	4,561,836	1,198,771	4,842,476	2,326,001	1,149,880	1,445,200	-	-	-	-	-	-
	꾸지나무곶해수욕장	-	-	-	-	-	44,045	64,506	35,135	41,316	-	-	-	-	-	-
	네이처월드(꽃축제장)	-	-	-	-	-	-	-	-	-	-	-	-	145,100	260,285	398,000

	안변노거연휴양림	1,046,017	406,960	482,894	480,518	378,210	333,197	332,897	376,792	435,280	456,405	456,305	411,578	435,498
	안변노쥬라기박물관	-	-	-	-	-	-	-	-	-	-	240,202	242,342	241,763
	안변해수욕장	240,559	286,679	317,788	313,645	30,386	97,543	124,525	66,802	79,801	-	-	-	-
	안흥유람선	-	-	-	-	-	-	-	-	-	-	57,192	76,117	85,480
	안흥항	-	1,39389	1,49210	1,450154	475,426	1,011,088	580,990	597,945	714,615	-	-	-	-
	어은들해수욕장	80,539	84,838	96,112	101,610	8,171	29,553	53,872	36,092	46,042	-	-	-	-
	연포해수욕장	542,588	817,612	889,292	922,776	88,235	563,575	658,120	420,364	171,623	-	-	-	-
	영동항	93,911	180,727	176,832	179,551	74,051	173,484	145,678	138,089	165,936	-	-	-	-
	오기드타운	-	-	-	-	-	160,850	48,403	300	-	-	-	-	-
	의항해수욕장	90,161	81,831	86,447	84,751	3,030	18,109	47,716	29,878	56,454	-	-	-	-
	장동해수욕장	75,641	82,910	95,304	104,425	19,229	32,802	40,101	16,715	25,228	-	-	-	-
	장산해수욕장	62,665	112,782	121,392	132,313	22,032	46,832	53,225	29,410	34,637	-	-	-	-
	찬리포수목원	91,190	8,923	14,644	16,729	173	135,661	163,335	172,583	241,603	341,892	300,666	276,714	278,488
	찬리포해수욕장	90,370	122,823	121,539	120,211	7,826	50,999	108,158	70,597	99,913	-	-	-	-
	청산수목원	36,391	30,325	31,473	34,368	-	-	-	-	-	-	-	-	-
	청산수목원(해안포동체)	-	-	-	-	-	-	-	-	-	-	-	-	22,500
	청포대해수욕장	318,478	372,013	403,771	396,555	142,864	475,912	441,300	294,876	177,183	-	-	-	-
	태안버치컨트리클럽	-	-	-	-	-	-	-	-	-	-	-	-	-
	통개해수욕장	49,873	49,925	25,473	71,308	2,028	5,511	21,220	10,717	20,306	-	-	-	-
	파노리해수욕장	174,958	224,625	267,240	255,215	23,888	56,086	106,982	81,418	70,251	-	-	-	-
	팍카밀레허브농원	-	-	-	-	-	-	-	-	-	-	68,695	69,089	57,150
	해임포해수욕장	390,005	478,967	547,350	563,350	55,088	440,929	466,023	336,198	187,988	-	-	-	-
	원대더링스컨트리클럽	-	-	-	-	-	-	-	-	-	-	-	-	-

소계	13,726,941	19,689,400	20,627,453	20,880,757	4,851,735	14,704,320	11,912,005	7,578,298	8,493,116	813,347	2,167,428	2,417,317	2,530,436
홍성군													
거북이마을	-	-	-	-	-	-	-	-	-	18,800	13,364	11,604	9,003
고암이음노생가년관	-	-	-	-	-	-	-	-	8,767	-	-	-	-
그림이있는정원	-	-	-	-	-	-	-	-	102,422	67,602	49,279	38,674	31,919
김좌진장군생가	118,861	291,766	511,368	208,008	186,752	346,356	165,778	131,379	94,961	75,062	49,493	51,194	51,075
남당항	640,442	988,922	1,336,047	1,273,335	1,118,421	1,274,774	1,601,841	1,548,567	1,538,050	-	-	-	-
문명환경농업마을	-	-	-	-	-	-	-	-	-	14,345	13,506	13,679	14,844
병암장수마을	-	-	-	-	-	-	-	-	-	1,241	2,645	3,118	859
식기박물관	-	-	-	-	-	-	-	-	-	-	26,536	40,059	28,043
오석산	125,322	317,297	291,406	251,347	260,354	330,888	556,554	550,166	589,647	-	-	-	-
용봉산	140,700	270,415	296,091	230,482	120,807	189,021	238,416	328,511	360,303	-	-	-	-
용봉산(용봉초매표식)	-	-	-	-	-	-	-	-	-	40,911	39,327	37,791	45,733
용봉산(구룡대매표식)	-	-	-	-	-	-	-	-	-	65,720	70,458	63,128	62,245
용봉산(선림휴양림매표식)	-	-	-	-	-	-	-	-	-	15,095	15,443	15,209	21,908
조탑사과혁관	-	-	-	-	-	18,069	32,524	22,644	26,494	34,013	18,507	25,680	20,197
한울문신생가	55,091	120,167	146,101	104,806	97,877	100,260	108,947	75,745	56,674	64,009	35,698	40,751	35,604
홍성온천관광호텔	134,354	263,376	277,311	535,684	351,081	248,024	249,368	175,732	166,285	147,046	122,512	167,824	164,067
홍주의시충	33,256	71,411	71,653	58,232	49,133	38,632	47,160	28,674	12,793	-	-	-	-
소계	12,480,026	2,323,354	2,330,027	2,661,954	2,184,425	2,346,024	3,000,588	2,861,418	3,016,396	543,844	456,768	508,711	485,497
계룡시													
나라사랑계룡대전학	-	-	-	-	-	-	-	-	-	-	42,173	45,547	43,959
소계											42,173	45,547	43,959
총합계	43,581,537	84,280,665	84,632,902	85,564,563	74,225,088	88,394,173	102,411,143	98,714,897	99,925,827	11,821,562	17,520,945	18,731,870	22,534,570

부록 3.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

1. 경기도

1) 조사 목적

- 경기도 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관련 통계의 확보가 필요함
- 경기관광산업 발전의 기여와 더불어 관광 사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통계 확보는 경기도의 관광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책 및 투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경기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행실태, 여행준비, 여행 활동 과정, 여행 평가를 조사하여 경기도 관광객의 여행 성향을 파악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개선을 위한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의 방문객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경기도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사임

2) 조사 주기 및 규모

- 조사 주기: 1년
- 조사 규모: 총 5,000명 (내국인 3,500명, 외국인 1,500명)

3) 조사 대상: 내국인, 외국인

○ 내국인

-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 조사지점과 동일 시, 군 거주자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10인 이상 동반자는 2명까지 조사(단, 집단 내 성/연령을 구분하여 조사)
- 성별 각 40% 이상 표집, 각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 이상 표집

○ 외국인

-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
-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10인 이상 동반자는 2명까지 조사. 단 집단 내 성/연령을 구분하여 조사

4)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현장 개별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종(내국인/외국인) 활용

- 외국인 설문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5종의 설문지 활용

5) 조사 기간: 분기별로 조사

○ 1분기: 6월 27일(월) - 7월 16일(토)

○ 2분기: 8월 20일(토) - 9월 08일(목)

○ 3분기: 10월 15일(토) - 11월 09일(수)

○ 4분기: 11월 28일(월) - 12월 21일(수)

○ 내국인: 1지점 당 총 2일 조사(평일 1일 + 주말 1일) 단, 조사대상자 수가 200명 이상인 지점은 평일 1일 + 주말 2일의 총 3일 조사 진행

○ 외국인: 1지점 당 2일~5일 간 조사 진행

6) 조사 지역

○ 조사 지역 선정 방법

-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으로 분류 후, 방문객 수에 따른 정렬
- 4개 권역 내에서 최대 4개 관광지 선정
- 관광객 수, 관광지 유형 및 관광지간 이격 거리를 고려, 시/군별 1개(최대 2개) 선정

○ 권역별 분류 기준

- 북서부지역 :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 북동부지역 :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 남서부지역 :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남동부지역 :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7) 주요 조사 내용

내국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인식: 자유연상 이미지, 이미지 긍/부정, 경기도 대표 관광지/대표 축제 - 여행일정: 여행기간, 숙박지역 및 시설, 동반유형 및 인원, 정보원, 여행 시기, 여행의 주요 목적 및 선택 이유, 참여 활동 - 여행준비: 주요 정보원, 가장 필요했던 정보 - 경기도 여행과정: 주이용 교통수단, 방문 여행지, 기념품/특산품, 지출 여행경비 - 만족도 및 평가: 전체 및 세부만족도, 가장 맛있던 음식, 재방문 및 추천 의향, 가장 좋았던 관광지, 비추천 이유 - 응답자: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직업 및 가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준비 및 일정: 여행기간, 주요 정보원, 가장 필요했던 정보, 동반유형 및 인원 - 여행 및 활동: 방문지역, 경기도 방문 결정 시기 및 여행 기간, 여행지 선정 이유, 참여활동, 숙박일수 및 이용 시설, 쇼핑 장소 및 주요 품목 지출 여행경비 - 경기도 여행 평가: 전체 및 세부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향

8) 모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2016년 경기도를 방문한 내, 외국인 관광객
- (조사 모집단) 2016년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내, 외국인 관광객
 - 단, 조사지점 동일시군 내 거주자 제외
- (모집단 자료)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승인통계)
 -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가지 지역유형으로 분류 후 방문객 수에 따른 관광지 활용

북서부지역	북동부지역
고양, 파주, 양주, 연천(4개 시군)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6개 시군)
남서부지역	남동부지역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오산, 안산, 시흥, 부천, 광명,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김포(14개시군)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안성, 여주, 양평(7개 시군)

9) 표본 크기 및 표본 할당

- 표본 크기 산출
 - 조사 시기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표본수 할당(6, 8, 10, 12월)
 - '15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광지를 시군별 4개 권역으로 분류
 - 조사 지점별 모객수를 반영한 제곱근 비례할당 추출법 적용
 - 분기별 조사 실시로 연간 내국인 3,500명, 외국인 1,500명 배정
 - 관광지별 표본배정은 관광지별 특성과 2015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등배 분하지 않고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조사 지점 선정
 - (조사지점 선정) 2015년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주요 관광지 선정
 - 주요 관광지는 관광목적, 관광지 특이사항 및 전문가의견을 활용하여 최종선정
 - (조사지점 수) 총 34개 관광지(내국인 21개, 외국인 3개, 공통 10개 지점) (주중, 주말) 매월 주중과 주말에서 각각 1일을 선정

○ 지점별 현황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지점수	31	13	15	10	14	10	15	10	14	9
조사인원	3,500	1,504	760	380	990	360	1,250	500	500	264

○ 표본오차

- 내국인 조사 표본 오차: $e = 2.5(\%)p$
- 외국인 조사 표본 오차: $e = 4.4(\%)p$

10) 표본 추출

○ 표본 추출

- 날짜 추출: 분기별 주중 1일, 주말 1일을 랜덤추출법에 의해 선정
- 내, 외국인 관광실태: 추출된 날짜에 선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으로 최종 표본 선정

○ 표본 대체

- (조사일 대체) 태풍, 우천 등 자연재해 또는 조사지점별 상황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주 해당 요일을 대체조사일로 설정
- (응답자 대체)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가 불응하거나 조사지점과 동일 시/군 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미만 등 조사 부적격으로 대상외일 경우 해당 v분의 다음 K번째 관광객을 대체 응답자로 선정

2. 서울특별시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의 방문 목적과 주요 방문지역, 활동 등 전반적인 관광행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서 경험한 여러 관광 콘텐츠에 대한 만족·불만족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됨

○ 궁극적으로, 서울 외래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강·약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이 일류 관광도시로의 질적·양적 도약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정량 조사

- 조사기간

1차 조사: 2016. 06. 25 ~ 07. 03

2차 조사: 2016. 10. 10 ~ 10. 21

- 조사대상: 서울 여행 후 출국하는 외래관광객 인천/김포국제공항 외국인 출국자

- 조사방법: 출구면접조사(ExitPoll)

- 표본크기: 3,000명 (1차, 2차 각1,500명)

- 표본오차: $\pm 1.79\%p$ (95%신뢰수준)

- 표본추출: 계통추출법 (Systematic sampling)

- 표본구성

구분	국적	전체 표본수			인천공항 표본 수			김포공항 표본 수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	일본	520	226	294	312	124	188	208	102	106
2	중국	1,068	394	674	990	366	624	78	28	50
3	대만	150	50	100	150	50	100	-	-	-
4	홍콩	158	54	104	158	54	104	-	-	-
5	기타 아시아 ¹⁾	476	242	234	476	242	234	-	-	-
6	미주 ²⁾	296	170	126	296	170	126	-	-	-
7	구주 ³⁾	192	126	66	192	126	66	-	-	-
8	대양주 ⁴⁾	48	28	20	48	28	20	-	-	-
9	아프리카/기타 ⁵⁾	92	44	48	92	44	48	-	-	-
계		3,000	1,334	1,666	2,714	1,204	1,510	286	130	156

주 1) 기타 아시아(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그 외 기타 아시아국가)

2)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그 외 기타 미주 국가)

3) 구주(러시아(연방),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외 기타 구주 국가)

4) 대양주(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외 기타 대양주국가)

5) 아프리카/기타(우즈베키스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외 국가)로 구분함

○ 정성 조사 설계

- 조사기간: 2016. 05. 02 ~ 05.18
- 조사대상: 서울 여행 중인외래관광객
- 조사방법: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 GroupInterview)
- 조사지역: 서울시 중구 FGI 전용시설(닐슨컴퍼니코리아 내)
- 표본크기: 그룹별 3-6명, 총 7그룹 29명 국가별 할당 및 권역별 배분
- 그룹구성: 중국3그룹, 중화권(홍콩, 대만), 일본, 구미주, 기타 아시아 각1그룹

3) 조사 내용

○ 정량조사 설문구성

구분	내용
I. 여행 준비 및 일정	§ 서울 방문 횟수
	§ 서울 방문 시 동행 인원 및 동행 일행과의 관계
	§ 서울 방문 목적 및 이유
	§ 서울 외 방문 경로 및 지역
	§ 서울 여행 시 필요 정보 획득경로
	§ 인터넷 정보획득 경로
	§ 이용한 서울 관광정보 및 가이드북/지도 획득장소
II. 숙박 시설 이용 실태	§ 서울 관광 가이드북/지도 이용 시 불편사항
	§ 한국 및 서울 체류일
	§ 숙박 시설 선택 시 주 영향요인
III. 대중교통 이용 실태	§ 이용 숙박 시설 및 이용 만족도
	§ 주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이용 시 불편사항
	§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 여부
	§ 서울시티투어버스 미이용 이유
	§ 선불교통카드 인지도 및 이용경험
IV. 서울여행 주요활동	§ 선불교통카드 만족도 및 이용금액
	§ 주요 방문지 및 최선호 방문지
	§ 참여한 관광활동 및 최선호 관광활동
	§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공연 참여실태
	§ 한류문화체험 참여실태
	§ 서울 연상 음식, 취식경험 음식 및 추천의향 음식
	§ 음식점 이용 시 불편사항
	§ 길거리 음식 취식경험/종류 및 만족도

	§ 쇼핑 장소 및 주요 구매 물품
	§ 쇼핑 시 불편사항
	§ 관광 시 이용한 관광안내서비스
	§ 관광안내소 이용 서비스
	§ 관광안내소 이용 시 불편사항
	§ 관광안내소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 관광불편신고센터 인지도
V. 여행 중 모바일 이용 실태	§ 여행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 모바일인터넷 이용 방법 § 서울 무료인터넷 사용환경 만족도 §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 불편사항 § 주 이용 어플리케이션종류 § 추가개발 희망 어플리케이션 종류
VI. 서울여행 소비실태	§ 계획 예산 § 항목별 지출 비용
VII. 서울 여행 평가	§ 서울 관광 만족도
	§ 서울 관광 불만족 이유
	§ 서울 재방문 의향
	§ 서울 관광 추천 의향
	§ 서울과 어울리는 기능적 이미지
	§ 서울과 어울리는 감성적 이미지

2) 정성조사 주요 진행 내용 (FGI 주제)

구분	내용
I. 여행지로서의 서울 (이미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지로서 서울을 선택한 이유 - 서울 여행 특징과 매력(이미지) 서울 여행에서의 희망활동 - 서울 여행 환경 평가 및 이유
II. 서울 여행 세부 평가	- 서울 여행 환경 평가 및 이유
	- 서울 시민에 대한평가
	- 외래관광객 입장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및 이유

4) 조사 진행

○ 정량 조사프로세스

- 설문지 작성: 확정된 설문을 외래관광객 국적 기준 주요국 7개 언어로 작성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불어)로 번역
- 면접원 선발: 외래관광객 및 실태조사 경험이 있으며 주요국 언어 구사가 가능한 면접원 선발
- 면접원 교육: 면접과정에서의 비표본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층교육 진행
- 조사 실시: 검증요원이 포함된 조사팀을 조사구역별로 구성, 출국장별 응답자 선정원칙에 따른 조사실시
- 조사 검증: 조사 종료 시 설문의 로직 점검, 응답 오류 점검, 면접조 조장의 2차 검증과 설문지 DB 입력시 3차 검증 실시
- 자료 처리
 - *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과정을 거쳐 전산처리 실시하며, 자료 처리는 아래의 과정을 거침
 - * 에디팅: 회수된 설문지 100%를 담당 수퍼바이저와 에디팅 담당자가 검토 후 수정 및 재조사
 - * 코딩: 코딩가이드에 의거하여 전문 코더가 부호화 작업
 - * 자료 입력: 2중 자료 입력을 통해 데이터 입력 시 발생 오류 최소화
 - * 데이터 클리닝: 통계적 이상치, Logical 이상치, Range 이상치, 주요 변수에 대한 확인 및 수정
 - * 통계 분석: 분석가이드에 의거하여 통계분석 전문팀에서 table 작업

○ 정성 조사 프로세스

- 참석자 모집: Visit Seoul Site 사전공고로 서울 여행 예정자 중 참석자 모집
- FGI 진행: 각 언어별 전문사회자 또는 한국어 전문사회자-동시통역 진행에 의해 FGI 방식 그룹토의진행
- 녹취록 작성: 각 언어별 직접진행 방식은 사후통역(영상통역 방식)으로 국문화 국문화된 FGI 내용 속기 및 녹취록 작성하여 정리

3. 부산광역시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역 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지역방문객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관련통계의 확보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함
- 부산 관광 산업의 기여도와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통계 확보는 부산의 관광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본조사의 목적은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부산의 관광정책수립 및 관광수용태세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범위

-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 시간적 범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내용적 범위

- 부산방문 내국인관광객들의 부산관광실태
-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들의 부산관광실태

○ 조사주기: 2년

○ 조사기관

- 조사주관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조사실시기관: (주)금성종합기술단

○ 표본 수

표본 수	2010년	2012년	2014년
내국인 총 표본 수	2,090명	2,030명	2,000명
영어	757명	773명	591명
일본어	761명	794명	639명
중국어	816명	776명	770명
외국인 총 표본 수	2,342명	2,349명	2,000명

2) 부산 내국인 방문객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부산을 방문하는 내국인 방문객의 부산 여행 실태를 분석하여 여행성향 파악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관광시장과 방문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방문객 유치 증대 및 향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조사 내용

- 부산방문횟수
- 부산방문목적
- 부산여행정보획득원천
- 부산체류기간
- 부산숙방장소
- 부산여행 방문지
- 부산방문활동
- 부산특색먹거리
- 부산방문지역
- 이용교통수단
- 부산여행경비
- 부산여행 동반자 유형 및 동반자 수
- 부산여행만족도
- 부산재방문의사
- 부산이미지
- 인구통계학적특성

○ 표본설계

- 모집단: 부산을 여행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부산시민 제외)
- 표본크기: 2,000명
- 조사기간: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매월 주중/주말 조사
- 조사방법: 해당 지역 내 개별 면접조사
-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pm 2.25\%p$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부산 외국인 방문객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부산여행 실태 및 소비실태, 여행평가를 분석하여 관광객의 여행 성향 파악 및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관광시장과 방문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관광객유치증대 및 향후 관광수용태세개선을 위한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조사내용

- 체류기간
- 부산방문목적
- 부산여행 정보 획득원천
- 부산방문 동반자유형 및 동반자수
- 부산방문경험 유무 및 이전 방문횟수
- 부산여행형태
- 한국여행 입/출국 도시 및 체류기간
- 부산방문시 관광 활동지
- 부산방문시 활동유형
- 부산여행에서 지출한 1인당 여행경비
- 출입국 수속시 만족도 및 불만족사항
- 이동교통수단
- 부산방문시 쇼핑장소 및 물품
- 부산방문객 숙박유형
- 부산에서 먹은 부산특색음식

- 부산여행 항목별 만족도
- 부산여행에서 좋았던 점
- 부산여행에서 불편했던 점
- 부산지역 물가수준 인식정도
- 부산방문 전/후 이미지
- 전반적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
- 인구통계학적 특성

○ 표본설계

- 모집단: 부산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을 경험한 만 19세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단, 조사시점이 관광활동을 종료한 이후여야 함)
- 표본크기: 2,000명
- 조사기간: 2014년1월1일~2014년12월31일. 매월 주중/주말조사
- 조사방법: 해당지역내 개별면접조사
- 신뢰수준: 95%신뢰수준에서 $\pm 2.25\%$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4. 경상남도

1) 조사 목적

-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정보와 통계의 질과 흐름을 향상시키고,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과 관광객의 이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관광정책의 과학화와 합리적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경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관광통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세부목적

- 경남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경남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여행실태를 조사하여 시군별 및 경남의 전반적 여행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과학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경남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여행실태를 조사하여 경남의 전반적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과학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경남에 대한 타시도 내국인의 여행형태 및 동향을 분석한 후 경남 관광정책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경남도민의 도내 및 국내 타 지역 여행형태 및 동향을 분석한 후 도민의 여가정책 수립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조사 내용

가.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 (27)	조사항목
설문대상 선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연령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 군 이미지 ■ 경남 이미지 ■ 해당 시 군 여행 경험 유무 ■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주요 여행 방문지 ■ 핵심 여행 방문지 ■ 교통수단 ■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여행 방문지 활동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 여행형태 및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에 남는 것 ■ 만족도 ■ 재방문 의향 ■ 추천의향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기본항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 ■ 성별 ■ 교육정도 ■ 직업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나.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 (25)	조사항목
설문대상 선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연령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이미지 ■ 한국 및 경남 방문 경험 및 횟수 ■ 주요 여행 방문지 ■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교통수단 ■ 여행 방문지 활동 ■ 여행형태 및 1인당 여행경비 ■ 한국 및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기억에 남는 여행 방문지 ■ 재방문 및 추천의사 ■ 인상 깊었던 점 ■ 불만사항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기본항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혼인상태 ■ 교육정도 ■ 직업

다.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30)	조사항목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여행경험 유무 ■ 여행횟수 ■ 여행 방문지역 및 여행시기 ■ 여행목적 ■ 주요 여행 방문지 ■ 기억에 남는 여행 방문지 ■ 교통수단 ■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여행 방문지 활동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 기억에 남는 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재방문 및 추천의향 ■ 경남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 1년 내 경남 방문의향 ■ 1년 내 방문 의향 지역 및 여행 방문지 ■ 1년 내 경남을 방문하지 않을 이유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 경남 이미지
기본항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가족관계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라.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조사내용(44)	조사항목
경남 여행경험에 관한 사항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여행 경험 유무 ■ 경남여행 횟수 ■ 경남여행 방문지역 및 여행시기 ■ 경남여행 목적 ■ 경남 주요 여행 방문지 ■ 기억에 남는 경남 여행 방문지 ■ 교통수단 ■ 경남 내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여행 방문지 활동 ■ 경남 여행 시 먹은 음식 ■ 쇼핑품목 ■ 기억에 남는 이유 ■ 여행 정보원 및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여행 동반형태 및 동반인원 ■ 1인당 여행경비
경남 여행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방안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재방문 및 추천의향 ■ 경남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 1년 내 경남 방문 의향 ■ 1년 내 방문 의향 지역 및 여행 방문지 ■ 1년 내 경남을 방문하지 않을 이유 ■ 경남관광발전을 위한 육성 장려 방안 ■ 경남 이미지
타 지역 관광에 관한 사항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 경험 유무 ■ 국내여행 횟수 ■ 국내여행 방문지역 ■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 방문지역 및 방문지 ■ 국내여행목적 ■ 국내여행 동반형태 ■ 국내여행 시기 ■ 교통수단 ■ 국내여행 동반인원 ■ 국내여행 시 숙박일수(박) ■ 숙박시설 ■ 기억에 남는 이유 ■ 1인당 여행경비 ■ 국내여행의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향
기본항목(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가족관계 ■ 월 평균 가구 총 소득 ■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3) 조사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가. 도내 주요 관광지 내국인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시 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한 만 15세 이상의 내국인 남 여
표본추출틀	■ 계절별 3,000명씩 총 12,000명
표본추출방법	■ 시 군별 관광지중 전년도 관광객수에 의한 비례배분 후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2008년 4월 26일 ~ 4월 30일 ■ 여름: 2008년 7월 31일 ~ 8월 4일 ■ 가을: 2008년 10월 16일 ~ 10월 21일 ■ 겨울: 2008년 12월 18일 ~ 12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조사지점 선정	■ 2007년 해당 월중 입장객이 많은 60곳을 선정하여 계절별 상황에 맞게 시군별 관광지 각 1곳 및 경남 주요 관광지 15곳을 선정
조사지점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조사대상 지점의 2007년 해당 월 1개월간 총 입장객수를 모수로 관광지별 비율배분 ■ 단, 관광지별 비례배분결과 50명 미만의 표본수가 나올 경우 최소단위를 50명으로 한 후 전년 관광지별 비례배분
응답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 지침에 의해 만 15세 이상의 방문객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형태별(개별여행, 단체여행 등) 표본 추출 한계수(數) 지정 등 · 개별 단체 관광객 비율(단체 20% 이상) · 남 여 성별 비율(여성 30% 이상) · 연령 비율(각 연령대별 5% 이상) · 주중 주말 비율(주중 20% 이상) · 도민 기타 지역민 비율(기타 지역민 20% 이상) · 당일 숙박 비율(숙박 20% 이상)

나. 도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시 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한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남녀
표본추출틀	■ 계절별 200명 총 800명
표본추출방법	■ 시 군별 관광지중 전년도 관광객수에 의한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2008년 4월 26일 ~ 4월 30일 ■ 여름: 2008년 7월 31일 ~ 8월 4일 ■ 가을: 2008년 10월 16일 ~ 10월 21일 ■ 겨울: 2008년 12월 18일 ~ 12월 23일

○ 표본추출방법

조사지점 선정 및 응답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에서 2007년 해당 월 중 외국인 입장객이 많은 관광지 10곳을 선정하여 상황에 맞게 3~5곳 선정 ■ 2007년 해당 월 1개월간 경남 관광지 총 입장객수를 모수로 관광지별 비율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관광지별 비례배분결과 30명 미만의 표본수가 나올 경우 최소단위를 30명으로 한 후 전년 관광지별 재 비례배분 ■ 표본 추출은 일정 기준 하에 임의로 추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북미주권, 유럽권, 일본, 중국, 기타 등) 표본 추출 한계수(數) 지정 등
------------------	---

다. 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전국(경남, 제주제외) 만 15세 이상
표본추출틀	■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통계청이 이용하는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표본규모	■ 2,040명
목표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2~3%(95% 신뢰수준) ■ 지역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5~10%(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09년 3월 23일 ~ 3월 31일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추출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각각 1개 층,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각각 2개 층으로 구성하여, 총 21개 층을 만듦

1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의 260,000개 전수조사구 중 통계청의 표본 조사구 26,505개를 제외한 233,495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 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14개 광역시/도(경남 및 제주도 제외)로 층화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연립및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등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 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로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2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의 260,000개 전수조사구 중 통계청의 표본 조사구 26,505개를 제외한 233,495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 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14개 광역시/도(경남 및 제주도 제외)로 층화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연립및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등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 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로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3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응답대상자 ■ 2차 추출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가구 내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양력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응답대상자로 선정

라.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 조사설계

모집단	■ 경남 거주 만 15세 이상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남 지역 조사구 중 통계청이 이용하는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표본규모	■ 1,160명
목표오차	■ 도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2~3%(95% 신뢰수준) ■ 시 군 단위 자료에서의 허용오차 10~14%(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09년 3월 23일 ~ 3월 31일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추출법

1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조사구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남 지역 17,852개 전수조사구중 통계청의 표본조사구 1,920개를 제외한 15,932개의 일반조사구(표본조사구에서 집단시설 조사구 및 섬지역 조사구 제외) 중에서 조사구내 가구수가 10개 이상인 일반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 ■ 층화: 표본추출틀 내의 전체 조사구를 20개 시/군으로 층화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층별 인구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각 층에서 추출할 조사구수를 결정 ■ 각 층 내의 조사구를 일차적으로 주택특성(단독주택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연립 및 다세대주택조사구, 기타 조사구)으로 분류하고,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내에서 다시 행정구역번호와 조사구번호 순으로 정렬 ■ 각 조사구의 총가구원수를 조사구의 크기 측도 함 ■ 각 층에서 조사구의 크기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조사구를 계통 추출
2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가구 ■ 1차 추출에서 추출된 각 조사구내 가구를 가구명부의 IX(거처번호와 가구번호)로 정렬 ■ 각 조사구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 ■ 접촉불능,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추출된 가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가구를 대체가구로 선정하여 조사 ■ 정렬된 가구명부에서 조사가구로 추출된 가구의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를 대체가구로 함
3차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단위: 응답대상자 ■ 2차 추출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가구 내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양력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응답대상자로 선정

4) 조사 수행기관

- 조사 의뢰기관: 경상남도(Gyeongsangnam-do)
- 조사 수행기관: 경남발전연구원(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 조사 협력기관: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내국인 경남 여행실태부문 및
경남도민 여행실태부문 협조)

5. 대구광역시

1) 조사목적

- 대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관광정책 수립, 관광업계 시장 대응, 학계 및 연구기관의 활용 등 효율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조사의 지속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 대구관광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설계

- 조사 대상 : 대구시 내 주요 관광지 방문 내·외국인
- 조사 규모: 내국인 2,000명, 외국인 1,000명 / 분기(계절)별 750명 내외 유효표본
 - 대구 관광객의 분기(계절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절
 - 관광지 방문객 수 및 권역을 고려, 대표 관광지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공항,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
 - 유효표본 규모는 내국인 관광객 2,000명, 외국인 관광객 1,000명 이상으로 하며, 대구 관광객의 분기(계절)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절
- 설문지: 각 언어별 번역 및 검수 실시(영어, 일어, 중국어)

- 자료수집: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대상에게 조사표를 작성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
- 표본추출방법: 분기(계절) 별 조사지점의 방문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 국적별, 성별, 연령별 표본할당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의 경우 동일 국가 내 거주지를 고려하여 방문자가 해당국가 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실시 기간: 2017년 4월 ~ 2018년 1월 (분기별 데이터 수집)
- 조사 횟수 : 연 4회 (분기/계절별 1회 조사 실시)
 - 분기별(계절별) 조사지점의 방문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 연간 표본수를 고려하여 분기별 기본 표본수를 책정하고,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사 실시
 - 조사 회수는 분기(또는 계절) 별 1회 이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연간 표본을 고려하여 분기별 기본 표본수를 책정하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3) 조사 내용

○ 내국인 관광객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관 광 활 동	방문횟수	- 대구 방문횟수
	방문목적	- 주요 방문 목적
	정보입수	- 관광정보 입수수단 및 경로
	체류기간	- 대구에 머무르는 시간
	숙박여부	- 당일 / 숙박여행(숙박 장소)
	관광명소	- 대구방문 주요 관광지 및 좋았던 곳
	주요활동	- 대구방문시 주로 한 활동
	방 문 지	- 여행 첫 방문지 / 최종 방문지
	이용교통	- 대구 방문시 주이용 교통수단(열차, 자가용) - 대구 관광시 주이용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 대구시티투어 이용여부 및 미이용 사유
	여행비용	- 1인당 여행경비(항목별 경비 구분)
	관광객유형	- 개별(동반자 수 및 동반자 유형), 단체
	쇼 핑	- 쇼핑품목, 쇼핑방문지역, 불편사항 - 관광기념품 구매경험 및 적정가격
	음 식	- 방문 기간 동안 맛본 대구 특색음식 - 추천음식, 추천음식거리, 불편사항
	축 제	- 체험축제 및 공연·콘서트 등 활동
평 가	관광안내소	- 이용여부, 이용서비스, 불편사항
	만 족 도	- 관광객 총 만족도 및 분야별 만족도
	재방문의향	- 재방문의향 유무
	불편 사항	- 불편 또는 개선할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광이미지	- 대구 관광이미지 등
		- 거주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가구월평균소득 등

○ 외국인 관광객 주요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관광활동	체류기간	- 한국체류기간/대구 체류기간 - 한국여행시 방문했던 모든 도시별 체재기간
	입출국경로	- 입국도시/출국도시
	방문목적	- 주요 방문 목적
	정보입수	- 관광정보 입수수단 및 경로
	동행	- 대구방문시 동반자 유형
	방문횟수	- 대구방문 횟수
	여행형태	- 개별/패키지/에어텔 등
	관광명소	- 대구방문 주요 관광지 및 좋았던 곳
	주요활동	- 대구방문시 주로 한 활동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여행비용	- 1인당 여행경비(항목별 경비 구분)
	쇼 핑	- 쇼핑장소, 쇼핑품목, 쇼핑만족도
	출입국불편사항	- 출입국 수속 만족도
	교통수단	- 타 도시에서 대구로 이동 교통수단 - 대구 시내 이동 교통수단 - 대구 시내 교통수단 만족도
	숙박편의	- 대구 체류시 이용 숙박시설/만족도
	음식	- 방문 기간 동안 맛본 대구 특색음식 - 추천음식, 추천음식거리, 불편사항
	축제	- 체험축제 및 공연·콘서트 등 활동
	관광안내소	- 이용여부, 이용서비스, 불편사항
평 가	만 족 도	- 관광객 총 만족도 및 분야별 만족도
	재방문의향	- 재방문의향 유무/재방문의향 없음 이유
	불편사항	- 불편했거나 어려웠던 점
	대구물가	- 대구 물가수준에 대한 의견
	대구이미지	- 방문 전후 이미지
인구통계학적특성		- 국적, 현재 거주 국가 및 도시 -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가구연소득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임재영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종윤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7-33 · 충남 지역 관광통계 실태와 조사 및 정비 방안

글쓴이·임재영, 이종윤

발행자·강현수 / 발행처·충남연구원

인쇄·2017년 12월 31일 / 발행·2017년 12월 31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041-840-1160(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29

ISBN·978-89-6124-429-9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